



[산업] 최태원 SK그룹 회장 하노이포럼 참석 사회적가치 전파 05



Economy

코스피	2086.09 (0.00)	코스닥	687.29 (0.00)
금리 (미국 3년)	1.96 (-0.01)	환율 (원/달러)	1128.30 (+11.00)(9일)

9·13부동산대책 두달... 싸늘해진 서울 주택시장

없어서 못사던 매물, 급매물 전략

서울 아파트값 14개월만에 상승세 멈추고 보합 전환 1억 이상 하락 매물도 나와 매수 대기자 관망세 유지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조이는 정부의 전방위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완전히 식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호가가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낮춘 매물이 등장하고 있지만, 매수자는 더 떨어지길 기다리며 꿈쩍도 안 하는 실정이다. 사진은 11일 오후 급매 정보가 붙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 모습. /연합뉴스

2018년 8월 22일 수요일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45평 매매안내합니다. 518동5층.19억/배란다확장 구울수리. 남향. 정상입주
2018년 11월 8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6단지 45평 급매가 나와서요. 607동12층이구요. 입주되고 18억에서 조정됩니다.

9·13 대책 이후 매수자들이 관망세에 접어들자, 서울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급매물을 알리고 있다.

“급매물 나왔는데요...”

9·13 대책이 나온 지 두 달 만에 주택거래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대출 규제를 조이자 매수 의지가 꺾이면서 가격 상승세가 멈추고 호가가 떨어졌다. '없어서 못사던' 매물들은 급매물로 전략했다. 그럼에도 매수 대기자들은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에서 호가가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하락한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로 작용하는 강남에서도 호가가 주저앉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의 경우 17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지난 9월 최고 거래가(18억5000만원)와 비교하면 1억5000만원 내린 가격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27억원 선에서 호가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9월 같은 평형이 최고 31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6월 박원순 서울 시장의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계획에 따라 인접지역으로 상승 효과를 누렸던 마포도 열기가 꺾였다.

마포구 대장주인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의 경우 지난 9월 최고 15억원까지 거래가 됐다. 현재는 같은 타입이 13억8000만원에 호가하고 있다.

9·13 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 만에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다. 이 대책은 대출 규제를 강화해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를 막는 한편,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9·13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 2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다. 지난해 9월 둘째에 따라 인접지역으로 상승 효과를 누렸던 마포도 열기가 꺾였다.

(강남·송파·잠실)도 3주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KB국민은행 주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지수는 지난 5일 4.0을 기록했다. 9·13 대책 시행 전인 8월 27일 65.7까지 올랐다가 두 달여 만에 61.7포인트 급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도 지난 5일 67.2까지 내려갔다. 지난 9월 3일 171.6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후 두 달 만에 104.4포인트 꺼졌다. '거래 절벽' 수준이다. 좀처럼 매매 거래가 이뤄지지 않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초조해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달 들어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급매물 소식을 종종 알려왔다. 심지어 방문하지 않고 전화 문의만 남긴 곳에서도 꾸준히 문자로 매물 소식을 전해왔다.

부동산114서성권 책임연구원은 "9·13 대책 발표 이후 과열양상이 진정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매도호기도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매수자들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수요자들은 주택 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분양시장과 올해 연말 발표되는 3기 신도시 공급계획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당분간 거래 없는 소강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미디어 '제3회 뉴테크포럼'

차원 다른 연결시대 5G가 열어 갈 세상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가 본격 개막합니다. 12월부터는 5G 방식의 전파도 쏘게 됩니다. 5G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모든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 변화합니다. 이전보다 월등하게 빨라진 속도와 엄청난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해져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5G는 일상생활 속으로도 들어옵니다.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초정밀 위치추위시스템, 자율자동차 등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산업별로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네트워크로봇 등 5G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입니다. 군사적으로도 5G는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 1~2회 뉴테크놀로지포럼을 통해 인공지능(AI)의 시대의 도래를 미리 살펴본 메트로미디어는 이제 5G의 세계를 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5G가 열어갈 세상은 어떤지, 이를 위한 기술은 어떤 게 있는지, 정책적으로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지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5G 시대를 메트로미디어 독자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메트로미디어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 5G, 차원 다른 연결의 시대 개막
- 일 시 : 2018년 11월 28일(수) 09:00~11:50
- 장 소 :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메트로미디어
-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SW·ICT총연합회
- 참가비 : 현장등록 5만원 (사전등록시 무료)
- 참가신청 : 제3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전화 (02)721-9800, 이메일: forum@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자 '폴더블폰' 출시 눈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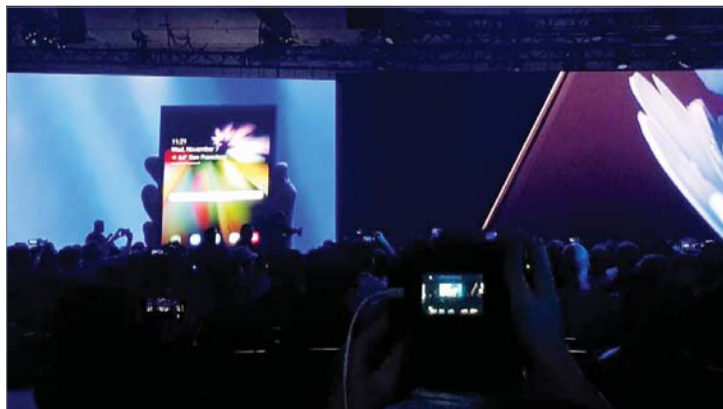
핵심부품 공급 삼성디스플레이·SDI 수혜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접었다 펼 수 있는 폴더블폰을 공개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가 수혜자로 주목받고 있다.

11일 IB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한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가 폴더블 OLED와 배터리를 각각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삼성이 공개한 폴더블폰은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의 스마트폰이다. 커버디스플레이는 4.58인치 OLED, 메인디스플레이는 7.3인치 OLED이다. 커버디스플레이는 화면비가 21대9, 메인디스플레이는 4.2대3이며, 해상도는 420dpi다.

접었을 때에도 화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도 디스플레이를 장착할 것으로 전망되며 무게는 200g으로 아이폰 Xs



삼성전자가 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미래를 만나는 곳(W here Now Meets Next)'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5회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SDC)에서 내년 출시할 폴더블폰(접었다 펴는 폰)의 디스플레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진은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펼쳤을 때 모습. /연합뉴스

(177g)과 유사하고 힌지(hinge)를 통해 디스플레이를 접고 펴는 과정을 원활히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IB업계에서는 올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판매가 역성장하면서 생산이 지연된 삼성디스플레이의 A4라인이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

고 있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019년 삼성전자의 폴더블 OLED 스마트폰의 상용화로 A4라인이 가동될 전망"이라며 "폴더블 OLED 스마트폰 수요는 2019년 200만대, 2020년 2000만대, 2021년 3500만대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2019년에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모바일 혁신이 될 전망"이라며 "특히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폴더블 폰 핵심 부품의 공급망을 삼성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내재화하고 있어 독점적 시장지위 확보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접을 수 있는 폴더블 능동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시장은 올해 20만장 규모로 내년 140만장, 2020년에는 520만장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폴더블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시장도 동반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공장 가동률 73% 엔진이 식어간다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 생산능력지수 첫 마이너스

제조업 공장 가동률이 2년 연속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시설 효율은 높아졌지만 투자 부진이 계속되는 탓에 생산이 충분히 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8%로 같은 기간 기준으로 1998년의 66.8% 이후 가장 낮았다.

제조업 가동률은 생산능력 대비 생산량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업종별 가동률 지수를 기초로 산정된다.

지난해 제조업 생산능력 대비 생산량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이래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가동률 지수는 통상 생산량이 늘면 올라간다. 하지만 공장 기계나 설비 등 생산능력이 축소되면 생산이 늘지 않거나 소폭 줄어도 가동률이 개선될 수 있다.

제조업 가동률 지수(1~9월)는

1998년 바닥(89.7)을 치고 이듬해 100.8으로 반등한 뒤에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2015년까지 매년 100을 웃돌았다.

이후 조선업 등 주요 산업 구조 조정이 본격화한 2016년에 100 밑으로 떨어진 뒤 지금까지 상승 반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동률 지수는 주로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과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등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주력산업 성장 둔화가 반영된 현상으로 해석된다.

가동률 하락세를 두고 특히 우려가 큰 이유는 그 원인에 있다.

최근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줄었음에도 생산이 미진한 탓에 가동률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9월 제조업 생산능력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시작된 1971년 이후 첫 마이너스이다. 생산능력 부진은 최근 설비투자 침체가 주된 요인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빛내서 성장한 경제... 자산 버블의 끝은 '장기 불황'

민스키 모멘트 시작되나 (버블붕괴 예고 경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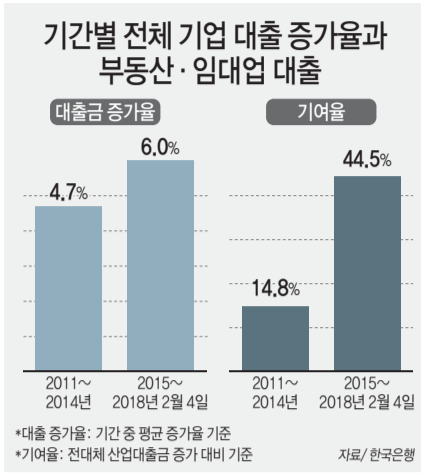
잃어버린 20년의 교훈

가계부채 수준 높고 증가폭도 커
버블 경고 울려... 구조조정 적기

정부의 공격적인 금리인하에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폭등했다. 금리인상과 부동산 관련 대출을 억제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가계는 빚에 허덕이며 소비를 줄였고,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에 빠졌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재정만 악화시켰다.

자산버블을 막아라. 일본의 장기불황,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의 교훈이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20년의 장기불황을 견딜 대규모 내수시장도, 탄탄한 자본력도 없다. '민스키 모멘트'가 오기 전에 자산버블에 대한 경고등이 더 크게 울려야 하는 이유다.



11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 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올해 2분기 98.7% 수준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수준 자체가 매우 높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증가 폭도 크다"며 "가계 신용순환을 보더라도 2014년 이후 확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

서 가계부채도 가파른 속도로 불어났다. 특히 서울 지역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높고, 전국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다. 지난 7월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의 지역별 비중은 서울 29.3%, 경기 24.7%, 6대 광역시 22.6%, 기타 23.5%로 집계됐다.

기업대출 측면에서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크게 늘었다.

전체 기업대출 증가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기여율은 2011년~2014년 14.8%에서 2015년~2018년 2분기 44.5%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말 33.1%에서 2018년 2분기 말 38.6%로 꾸준히 올랐다.

한은은 "그동안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큰 폭 상승하고 기업 신용 중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대출도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됐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통화정책 운영 시 금융 안정에 대해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빛으로 끌어올린 가격이라도 계속 올라가지만 한다면 상관이 없다. 문제는 가격 거품이 빠지면서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집을 보유한 가계를 생각해 보자. 집을 구입할 때 6억원의 빚과 4억원의 순자산 투입했다. 집값이 반토막이 나면서 이 가계의 순자산이 모두 날아간 것은 물론 집을 경매에 넘기기도 쉽지 못한 1억원의 빚은 그대로 남게 된다.

위기 상황은 이 가계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집도 없고 빚만 남은 가계는 소비를 극도로 줄여야 하고, 기업들의 매출은 가파르게 곤두박질 친다. 고용은 줄고 가계소득은 더 낮아지는 불황의 악순환이 시작된다.

이미 국내 부동산 가격에 대한 거품 경고등은 울렸다.

보험연구원 윤성훈 선임연구원은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변동성 추이를 비교한 결과 한강 이남의 아파트의 경우 거품 조짐에 들어섰고, 한강 이북 지역도 거품 수준에 근접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거품이 꺼질 때 정도가 과도할 경우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도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나설 적기라는 의견도 나온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가계부채 발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면서 현 단계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 주도의 가계부채 구조조정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투자 심리는 양호한 상황으로 대다수 과다 채무 다주택자의 순자산이 플러스인 현 시점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 연구원은 "가계부채 부실화의 핵심 주체는 취약차주가 아니라 과다 차입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한 차주로 구조조정 시기를 놓칠 경우 구조조정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나아가 전체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IMO 황산화물 규제에... LNG 강국 국내 조선사 수주 청신호

글로벌 선사, 대책으로 스크러버 장착 국내 조선사는 LNG추진선으로 교체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규제로 글로벌 대형선사들이 스크러버(황산화물 세정장치)를 채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 조선사들은 비용 부담이 덜하다는 이유로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수주에 눈을 돌리고 있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형선사들은 운용 선박에 스크러버를 채용하

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선사인 젠코쉬핑앤드트레이딩은 케이프 사이즈 벌크선 17척에 스크러버를 장착했다.

세계 최대 해운업체인 덴마크 머스크도 일부 선박에 스크러버를 시험 장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덴마크의 경우 선박배기 추적기술을 활용해 규제를 위반하는 선박에 대해 4600달러에서 1만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3만667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황산화물 규제위반에 따른 최대 벌금금액은 5만7500달러

다. 경우에 따라서 선박구금이나 입항금지 등의 벌칙을 내리기도 한다.

해운사들은 IMO 황산화물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 배에 스크러버를 부착하거나 저유황유로 연료를 바꿔야 한다. IMO의 황산화물 규제는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은 이 환경규제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그러나 해운사들이 연료를 저유황유로 바꾸게 되면 연료비가 벙커C유 대비

50% 이상 증가하게 된다. 스크러버 장착 비용은 배 한 척당 60억~100억원이상이다. 스크러버 사용으로 선체 내부 등이 변질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엔트워프, 로테르담 등 유럽의 주요 항구에서는 스크러버를 장착한 배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파이프나 선체 내부에 심각한 부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내 조선사들은 LNG추진선과 벙커링선 인도를 시작했다. 비용부담이 큰 스크러버나 저유황유 보다는 선박을

LNG추진선으로 교체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LNG연료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LNG추진선 투자가 늘어날수록 LNG연료탱크 사업 성장성이 부각될 것이며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에게는 중국 조선사들과 격차를 벌릴 좋은 기회다. 조선3사끼리는 기술력에 차이가 크지 않지만 중국 조선사들과 비교하면 국내 기술력이 크게 앞서기 때문이다.

한편 순수한 화물선 중에서 LNG추진선 수주 실적은 현재 현대중공업이 18척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삼성중공업은 10척, 대우조선해양은 아직 실적이 없다.

/정영우 기자 yw964@

수정·보완 내용을 학교 현장에 빠르게 전달합니다.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 수정·보완 업무 내실화 및 시스템 개선, 수정·보완 시스템 지원 체제 확립으로 교과용도서의 질을 제고합니다.

교과용도서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교과용도서 질을 제고하고, 교실 수업을 지원하며,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이용방법

www.textbook.or.kr

☎ 1566-8572 (T105 상담전화)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Textbook Information One-stop Service

“고령화·저출산 여파 生保시장 쪼그라든다… M&A 시급”

보험연구원 생명보험 시장 보고서
수입보험료 3년 연속 감소세
시장 축소에 경쟁 심화 우려

고령화, 저출산 영향으로 향후 우리나라 생명보험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큰 만큼 보험사별로 상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길게는 인수·합병(M&A)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1일 보험연구원의 ‘국내 생명보험 시장축소와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17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며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생명보험시장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진지도 10월 금융보고서에서 “선진국 중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과 일본 등의 보험시장은 성장이 계속 둔화될

년도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증가율
2015	117.2	6.0
2016	119.8	2.2
2017	114.0	-4.9
2018/E	108.9	-4.5
2019/F	104.8	-3.8

단위:조원·% / 자료=보험연구원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기대수명은 지난 2008년 79.1세에서 2012년 80.0세, 2014년 80.7세, 2016년 80.8세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더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다. 2008년 79.6세였던 평균수명은 2010년 80.2세, 2013년 81.4세, 2014년 81.8세, 2015년 82.1세, 2016년 82.4세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은 가장 낮다. 2016년 기준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8명인데 우리나라는 1.1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였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일 경우 초저출산 현상을 겪는 국가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2001년 1.309명을 기록한 이후 16년간 ‘초저출산국’ 꼬리표가 붙었다.

국내 통계는 더 안 좋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 합계출산율은 1.05명(잠정)으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이같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 2032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것

로 전망했지만(중위인구추계 기준) 국회 예산정책처는 총인구 감소 시기가 이보다 4년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체코, 독일, 핀란드, 스페인 사례를 보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를 전후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도 수입보험료가 2017년(-4.9%)부터 줄어들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2018년 -4.5%, 2019년 -3.8%로 3년 연속 감소하고 2022년까지 연평균 1.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생명보험 법인세차감전이익은 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의 57%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OECD 주요국의 과거 25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대여명의 증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률과 금리 하락, 금융산업 규모 감소와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생명보험시장이 정체되거나 축소될 경우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M&A가 증가하는 등 시장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인구 고령화로 생명보험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일본은 M&A를 통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보유계약 확보 필요성이 강조됐다. 1996년 진입규제 철폐 이후 1995년 31개에서 2010년 48개까지 늘어났던 일본 생보사 수는 2015년 41개로 축소됐다.

특히 일본은 경쟁력 있는 주력 상품이 회사별로 명확하고 주력 상품에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생보사들의 상품 포트폴리오는 유사한 데다 경쟁력 있는 주력 상품이 명확하지 않았다.

윤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시장 축소가 본격화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규모가 비슷한 생보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력이 있는 상품 개발 노력이 시급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화 또는 M&A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우리은행, TF 만들고 지주사 전환 속도

인가 설립·운영방안 등 마련
은행 등 자회사 80명 발령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1월 가칭 우리금융지주 출범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주 전환 TF를 운영하기로 하고 최근 은행과 카드·증권 등 자회사 소속 80명을 TF로 발령했다. 지주 전환 TF는 전략, 재무, 인사, 리스크관리, 정보기술(IT) 등 부문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개최, 지주 설립 등기, 지주사 주권 상장 등 지주사 전환 관련 업무 전반을 처리한다. 내년도 경영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수립, 규정 제정, IT 개발, 인사제도 마련과 같은 지주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작업도 한다.

12월 28일 주총에서 지주사 전환 방안이 의결되면 가칭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1월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앞서 금융당국 인가를 얻고 지배구조 방안까지 정한 상태다.

우리금융지주가 5년 만에 부활하기 전에 해결할 현안이 적지 않다.

시급한 과제로 자본 확충이 꼽힌다. 지주사 전환으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3.8%포인트가량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주사 전환 시 자산 위험도 평가 방법을 현재 내부등급법에서 표준등급법으로 바꿔야 해서다. 은행의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산출하는 내부등급법 대신 금융회사 전체 평균을 적용하는 표준등급법을 쓰면 위험가치가 높아져 자본비율이 하락한다. 단순한 평가 방식 변경만으로 BIS 비율이 15.8%(9월말 현재)에서 12.0% 떨어진다.

우리카드와 우리증권의 자회사 전환도 마무리해야 한다. 지금까지선 우리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된다. 우리카드는 현재와 같은 ‘포괄적 주식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오버행(대량 대가매물) 이슈가 발생한다. 우리은행이 100% 자회사인 우리카드의 주식을 우리금융지주에

넘기면서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받으면 6개월 안에 팔아야 해서다. 우리카드의 규모가 크다보니 주식 이전 대가로 우리은행이 받게 되는 지주사 주식이 전체 10%에 달한다. 이 정도 주식 물량을 단기간 내 팔면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에서도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당국은 지주사 전환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주사 지분(18.4%)을 매각할 예정이다.

우리증권은 우리은행이 보유한 지분이 59.8%다. 주총에서 지주사 전환 동의에 필요한 지분율인 70%에 못 미친다. 혹시 주총에서 부결되면 전체 지주사 전환 일정 자체가 어긋날 수 있다.

지주사의 99%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은행의 비중을 낮추는 것도 숙제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금융지주의 주요 임무이기도 하다. 우리금융지주는 부동산신탁, 자산운용, 캐피탈 등의 인수·합병(M&A)을 우선해서 추진하고 보험과 증권 등은 중장기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김민호 기자 kmh@



신한금융그룹, 서산·황성에 '신한 꿈도담터' 오픈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9일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서산시 맹정호 시장 및 시의회 관계자들, 성일중 국회의원, 신한은행 충남서부 국규한 지역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 꿈도담터'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산시 맹정호 시장(뒷줄 왼쪽에서 일곱번째)과 관계자들이 개소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2018 모두하나데이 캠페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9일 서울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 앞마당에서 '2018 모두하나데이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김정태 회장은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며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과 지자체, 일반기업이 함께하는 나눔 실천이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정연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장(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 황성욱 롯데제과 재경팀 상무(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다문화 이주 여성, 가족사랑봉사단원들과 소외계층에 전달할 '사랑의 김장'을 담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주금공, 적격대출에 유한책임 대출 도입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비소구) 대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 방식을 도입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에 대해 확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2월 대출 신청년부터 시행된다.

유한책임 주담대는 기존과 달리 집 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으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다.

유한책임 적격대출은 서민·신수요자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면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IBK기업은행-금감원-한국정보화진흥원, 실시간 보이스피싱 시 탐지 MOU

지난 9일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IBK 실시간 보이스피싱 시 탐지 서비스의 성공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오른쪽), 이상재 금융감독원 부원장(가운데),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제56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11월 14일~12월 6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11월 17일~12월 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응선) : 300,000 → 130,000원
11월 25일(일), 12월 2일(일), 12월4일(화)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최태원, 日·越·中 돌며 사회적가치 전파 ‘아시안 투어’

(SK그룹 회장)

SK그룹 ‘하노이포럼’ 참석

딥체인지 경영사례 등 대안 제시
탄소저감 인센티브 프로그램 소개
17일엔 ‘난징포럼’도 참석 예정

베트남을 방문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1회 ‘하노이 포럼’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중요성을 설교했다.

11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8일 베트남 하노이시(市) 총리 공관에서 응웬쑤언푹(Nguyen Xuan Phuoc) 총리와 만나 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 참여 등을 논의한데 이어 9일부터 이틀간 하노이국립대학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열리는 제1회 ‘하노이 포럼’에 참석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9일 베트남 하노이국립대학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열린 제1회 ‘하노이 포럼’ 축사를 하고 있다. /SK

이 포럼은 한국고등교육재단과 베트남 하노이국립대학이 한-베트남 간 학술 및 교류협력 등을 위해 올해 창립했다. 고등교육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포럼에

참석한 최 회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베트남도 올해 막대한 태풍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문제는 특정 국가의 이슈가 아닌 글로벌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

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환경보존에 더 적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며 경제적가치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개선 등과 같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SK의 ‘딥 체인지(Deep Change)’ 경영 사례를 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SK 관계사들이 창출한 환경보호 성과를 비롯한 사회적가치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중이고 이 시스템을 활용해 탄소저감 등 사회적가치를 창출한 사회적기업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SPC)’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포럼에는 응웬 베트남 총리와 헬렌 클락 뉴질랜드 전 총리, 응웬 김 선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국립대 총장, 김도현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 김용학 연세대 총

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 6~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니케이 포럼에 참석했던 최 회장은 오는 17일에는 중국 난징에서 개막하는 ‘제3회 난징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이해와 대화: 아·태 공동운명체 구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가치 추구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는 러우친젠 장쑤성 서기, 장징화 난징시 서기, 루지엔 난징대 총장, 최광철 SK사회공헌위원장,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SK그룹은 지난 9월 베트남 대기업인 마산그룹의 지주회사 지분 9.5%를 4억7000만 달러(약 5300억원)에 매입하는 등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LG 오브제 공기청정기, /LG전자 삼성전자 갤럭시시흥, /삼성전자 카카오 미니, /카카오

“미래의 거실 주인은 누구?” 가전사, 스마트홈 전략 강화

거실 쟁탈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스마트홈 시대를 대비한 발 빠른 전략이다. 가전과 휴대전화 단말기, 가구와 자동차까지도 거실 주도권을 노리고 있다.

◆스마트 스피커, IT 업계 희망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마트 스피커는 스마트홈 시대 필수품으로 예상되는 기기다. 음성명령을 받아 인공지능으로 판단하고, 연결된 기기들에 명령하는 역할까지 맡는다.

스마트 스피커는 인공지능을 핵심 기능으로 작동하는 만큼, IT 업계 활약이 돋보이는 분야이기도 하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구글이 만든 ‘구글 홈’과 아마존 ‘에코’가 일찌감치 시장에 진입했다. 각각 구글 어시스턴트와 알렉사라는 인공지능을 사용한다. 전화와 TV뿐 아니라, IoT 가전에도 연동할 수 있다. 구글홈은 지난 9월 국내에도 출시됐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스마트 스피커를 판매 중이다. 네이버는 웨이브와 프렌즈, 카카오는 미니다. 인공지능 이름은 네이버가 클로바, 카카오가 카카오프리미어(i)다.

통신 업계도 가세했다. SK텔레콤은 2016년 누구라는 스마트 스피커를 출시했다. 인공지능 이름도 누구다.

특히 KT 기가지니는 가입자만 100만대를 넘기면서 사실상 국내 최대 스마트 스피커로 자리잡았다. 따로 판매하지는 않지만, 세계 최초로 IPTV 단말기와 연계하면서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가전, 스마트시티를 향해

반면 기존 가전 업체는 스마트 스피커 시장 진출에는 다소 굵은 모습이다. LG전자는 작년 씽큐 허브를 출시했지만, 마

케팅에 주력하지는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홈을 최근에서야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18(SDC2018)’에서 처음 실물을 공개한 정도다.

대신 가전 업체는 자사 인공지능 확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단지 거실을 주도하는 스마트홈을 벗어나, 스마트 시티를 주도한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SDC2018에서 인공지능인 빅스비 개발자를 출시했다. 일종의 애플리케이션인 ‘빅스비 캡슐’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는 제품이다.

빅스비 캡슐은 빅스비 활용도를 높이면서, 여러 브랜드 기기가 빅스비를 탑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빅스비가 가전 시장에서 OS 노릇을 하게 되는 셈이다.

스마트싱스는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IoT 생태계 핵심이다. 스마트싱스는 IoT 연결 도구로, 삼성전자뿐 아니라 일부 타사가전까지도 연동할 수 있다.

일부 IT 업계도 이 같은 전략을 따르는 모습이다. 카카오는 최근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출시하고 IoT 생태계 통합에도 전했다. 코웨이와 필립스 등과도 제휴를 맺었다. 아마존은 일찌이 ‘알렉사 스킴’이라는 방법으로 인공지능 확산을 꾀했다.

LG전자는 전통적인 가구 시장에 주목했다. 가구를 가전에 결합한 프리미엄 브랜드 오브제를 통해서다. LG전자는 오브제가 단지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입장이지만, 미래에는 가구도 가전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가전업체 관계자는 “스마트 스피커는 여러 가전 중 하나일뿐”이라며 “브랜드와 형태를 넘어 더 많은 가전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가전 업계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재용 기자 juk@

“수소에너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앞장”

현대차 ‘블룸버그 뉴이코노미 포럼’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참석
“전기차·수소차 공존발전 시킬 것”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리더들과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를 열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선다.

11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6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진행된 제1회 블룸버그 뉴이코노미 포럼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는 ‘무공해 사회 구현과 지속가능 성장’으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도 참석했다.

미래 ‘무공해 사회’의 현실화와 수소 에너지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석학, 업계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자리로 현대차가 주최했다. 토론회는 영국 왕립경제협회 니콜라스 스톤회장의 사회로 맥쿼리 아시아 벤 웨이 CEO, 퓨처맵 파라그 카나 대표 등이 패널로 참가해 진행됐다.

이날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최근 UN은 2030년까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수준의 45%를 감소시키지 않으면 재앙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수소 에너지는 청정 에너지 사회로 전환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수소에너지가 교통 부문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오른쪽)과 그림 엔서니 탄 설립자 겸 CEO가 6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블룸버그 뉴이코노미 포럼’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블룸버그 뉴 이코노미

성공을 견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

맥쿼리 벤 웨이 CEO는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시장에 확신을 주고, 신재생 산업 분야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통합적 노력이 바탕이 돼야 정부, 시민사회, 엔지니어 등 사회 전반이 에너지 진화 과정에 적극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퓨처맵 파라그 카나 대표는 “정부가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김세훈 상무도 패널로 나섰다. 김상무는 “미래 사회는 인간의 일을 기

계가 대신하게 돼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인류는 배출 가스가 없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수소는 에너지원의 저장과 유통에서 강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동차 무공해 동력원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뿐”이라며 “무공해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기술이 함께 발전해야 하는 만큼 현대차그룹은 이 두 기술을 함께 공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무공해 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수소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는 활동을 계속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그랜저·싼타페 곧 ‘10만대 클럽’ 입성

현대자동차의 그랜저와 싼타페가 연간 내수 10만대 이상이 팔리는 차종을 가리키는 ‘10만대 클럽’에 무난히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그랜저는 올해 1~10월 총 9만2491대가 팔려 1위를 달리고 있다. 싼타페가 그 뒤를 이어 8만 9558대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월평균 판매량은 각각 9249대, 8955대다. 그랜저는 2년 연속으로, 싼타페는 SUV 최초로 10만대 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10만대 클럽 자동차는 2000년대 들어 2003년, 2004년, 2013년, 2016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배출됐다.

2010년에는 쏘나타·아반떼·모닝이 가입했고, 2011년에는 아반떼·모닝·그랜저·쏘나타가, 2012년에는 아반떼·쏘나타가 포함됐다. 2014년에는 쏘나타만 간신히 들어갔고 2015년에는 쏘나타·아반떼, 2017년에는 그랜저·포터가 이름을 올렸다.

기존 10만대 클럽은 세단과 경승용차가 중심이었고 SUV는 없었다. 싼타페는

2015년 9만2928대까지 판매량이 늘었으나 10만대는 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SUV 바람을 타고 싼타페는 처음 10만대 클럽에 이어 베스트셀링카에도 도전한다. 신형 모델이 출시된 지난 3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싼타페가 그랜저를 월간 판매량에서 앞섰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하반기 최대 기대작 몰려온다

대형SUV ‘팰리세이드’, 신차급 변신 ‘G90’ 출시 임박

이달 중순 카마스터 대상 신차설명회 차종별 마케팅 등 고객 소통 강화

팰리세이드, 이달 말 사전계약 풀체인지급 G90은 27일 출시

현대자동차가 올하반기 최대 기대작인 제네시스 브랜드 ‘G90’과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의 출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1월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G90과 팰리세이드의 출시를 앞두고 부산에서 카마스터와 지점장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 신차설명회를 진행한다. 카마스터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신차설명회에서는 각 차종별로 디자인과 마케팅, 상품 USP, 실차 체험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출시하는 차량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높여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팰리세이드에는 운전석에서부터 3열 승객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간에 사용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에 설치된 ‘팰리세이드’ 대형 미디어 파사드 티저 광고.

자 경험(UX)을 기반으로 개발된 디자인과 패키지, 안전·편의 기술이 적용됐다. 현대차는 오는 2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오토쇼에서 전세계 최초로 팰리세이드를 공개할 예정이며 국내에선 이달 말부터 사전계약 접수를 시작한다.

최근 SUV가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팰리세이드의 출시로 대형 SUV 시장도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현재 대형 SUV 시장의 강자인 쌍용자동차의 ‘G4 렉스턴’은 지난 8월 디자인을 세련되게 다듬고 편의사양을 강화한 2019년형 모델을 출시했다. 또 G4 렉스턴의 경쟁 모델인 기아자동차의 ‘모하비’도 이달 초 2019년형이 새로 출시됐다.

현대차는 오는 27일 출시를 앞둔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 G90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팰리세이드와 함께 카마스터들을 대상으로 신차설명회를



제네시스 G90 티저 이미지.

진행한다.

G90은 2015년 현대차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출시하며 처음 선보인 모델 EQ900을 개선했다. 현재 북미에서는 EQ900이 G90이란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 제네시스는 이번에 EQ900의 부분변경 모델을 국내에 출시하며 이름을 북미와 맞춰 G90으로 바꿔 통일시켰다.

이번에 공개된 G90은 부분 변경이지만 신차급으로 디자인을 대폭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전·후면 램프만 있던 EQ900과 달리 전면·측면·후면 세 군데 램프

가 일직선으로 연결돼 차량을 감싸는 모양으로 설계했다. 제네시스는 오는 9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인천, 대구, 부산에서 G90 출시 전 차량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한다.

사전 계약 기간에 G90을 계약하는 고객에게는 내년엔 차량이 출고되어도 개별소비세 인상 전 가격을 보장해준다. 판매 가격은 ▲3.8 가솔린 7706만원 ▲3.3 터보 가솔린 8090만원 ▲5.0 가솔린 1억 1878만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 하반기 출시되는 두 차량 모두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내부에서도 남다른 애정과 기대감을 갖고 선보이는 모델”이라며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완벽한 준비를 통해 고객들에게 차량에 맞는 품격을 전달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팰리세이드는 대형 SUV시장에 새로운 기준과 가치를 제시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SUV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두산인프라코어, 印尼 방산장비시장 진출

자카르타 ‘방위산업전시회’서 핀다드와 엔진공급 협력 MOU



두산인프라코어가 인도네시아 방산장비용 엔진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7~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인 핀다드와 엔진 공급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두산인프라코어는 핀다드와 함께 인도네시아 방산 장비에 대한 엔진 탑재를 검토하고, 엔진 선정·물량 검토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9월 인도네시아 국영 엔진 생산업체 BBI와 디젤엔진 현지 생산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인도네시아 엔진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

후 차량과 선박, 산업장비 등 다양한 산업군에 엔진 공급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다양한 엔진 제품 라인업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잠재 시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장을 다각화하면서 글로벌 엔진 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10월 이탈리아 트랙터 생산업체 아르보스와 6년간 2만7000여대의 디젤엔진을 공급하는 LOI(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또 중국지게차 회사 바올리의 엔진 공급사도 선정돼 2025년까지 1만2000여 대의 디젤엔진을 공급하기로 했다. /양성문 기자

KT, 인천공항서 자율주행 버스 시연 성공

인천공항 제1터미널 2.2km간 주행 차선변경·속도감소 등 안정적 완주

KT가 만든 자율주행버스가 인천공항을 가로질렀다.

KT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임직원이 참관했다.

앞서 KT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공항을 만드는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KT 자율주행버스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2.2km간을 주행했다. 차선



KT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시험 운행했다고 밝혔다. /KT

변경뿐 아니라, 앞차와 신호 교차로를 안정적으로 완주했다. 식해 속도를 줄이고 장애물을 피하는 등

/김재용 기자 juk@

LG유플러스, 경력단절여성 지원 앞장

‘시간선택제’ 영업전문 인재 18일까지 지원자 모집나서

LG유플러스는 결혼·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에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선택제’ 영업전문 인재를 인원 제한 없이 공개 채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8일까지 LG유플러스 채용 사이트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고 서류전형, 면접 등을 거쳐 내년 1월 입사하게 된다.

입사자는 전국 LG유플러스 직영점의 영업인재로 통신 서비스 컨설팅 및 판매,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간선택제 영업전문인재는 가사 활동 시간을 고려해 4시간 또는 6시간 근무 선택이 가능하다. 4시간 근무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정오 1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유플러스 모델이 ‘시간선택제’ 영업전문인재 공개 채용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6시간 근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정오 12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오후 1시부터 7시 30분까지, 오후 2시부터 8시 30분까지 등 5가지 시간대가 있다. 총 9가지 타입 중에 원하는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KT, 호주 퀸즐랜드주에 첨단 ICT 심는다

호주 SCC·서울대 농과대학과 MOU 교통·행정 등 스마트 커뮤니티 구축

KT가 호주 퀸즐랜드주에도 첨단 ICT를 심는다.

KT는 8일 호주 SCC와 퀸즐랜드주에 스마트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도 함께하는 3자간 MOU로 진행됐다.

스마트커뮤니티는 지역에 ICT를 접목해 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 생산성을 높인다는 개념이다. 에너지와 교통, 환경,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KT는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팜 등 ICT 구축 노후우를 퀸즐랜드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대의 농업생명분야 연구, SCC의 차세대 생명 신소재 역량도 함께 힘을 합친다.

구현모 KT 경영기획부부장장은 “서



KT는 8일 서울 KT 광화문 빌딩에서 호주 퀸즐랜드주에 스마트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호주 SCC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KT

울대학교 및 SCC와의 협력을 통해 KT가 한국에서 인정 받은 스마트 커뮤니티 서비스를 호주 퀸즐랜드주에 현지화할 계획”이라며 “사업의 성공적인 진출과 더불어

앞으로 퀸즐랜드뿐 아니라 호주 전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반도체 강호의 고수들이 함께 살아가는 반도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 옛날 강호의 협객들이 비급의 전수를 통해 새로운 무공을 탄생시키듯
SK하이닉스와 1083개 협력사들은 기술과 설비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기술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내는 새로운 반도체 세상

SK하이닉스 최고의 경쟁력은 '상생'입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쇼핑·여가·주거’ 3박자 갖춘 주거복합단지 뜬다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 등

청약 경쟁률 100대 1까지 넘어
이달 공급 복합단지도 시선집중

‘쇼핑·여가·주거’ 3박자를 갖춘 주거복합단지가 분양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11월 주택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분양한 주요 주거복합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서 공급한 ‘힐스테이트 중동’은 오피스텔 49실 모집에 6188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평균 126.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파트

〈주거복합단지 분양(예정)리스트〉

위치	단지명	총가구수 (일반분양)	건설사
인천광역시 미추홀뉴타운 내 도시개발 1구역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	864	한화건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80번지 일원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846	대우건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금남로 대광로제비앙	519(151)	대광건설

*분양 개요는 건설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아파트 기준). /자료=각사

도 615가구 모집에 1만1596개의 통장 접수돼 18.86대 1로 1순위 마감했으며, 상업 시설도 단기간에 완판됐다.

8월 경기 동탄2신도시 ‘동탄역 유턴노르웨이숲’ 복합단지는 206가구 모집에 3만8029명이 몰리며 1순위 청약경쟁률 184.61대 1로 올해 수도권 아파트 최고 경

쟁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거복합단지는 교통, 편의시설, 자연환경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춰 신규 분양 시장에서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11월에 공급하는 주거복합단지도 청약 인기몰이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달 인천에서 미추홀뉴타운 개발 첫 시작을 알리는 주거복합단지가 공급된다. 한화건설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28-9번지(전 주안초교 부지) 일대에 조성하는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이다. 이 단지는 지하 8층~지상 44층, 4개동, 전용면적 59~147㎡ 864가구로 구성된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주거복합단지의 청약 성적이 인기를 입증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송도 SK뷰 센트럴’은 2017년 인천 최고 경쟁률인 123.76대 1, 오피스텔 역시 51.3대 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산에서는 대우건설이 부산 영도구 동삼동 1180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동삼동 복합지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며 지하3층~지상 49층, 아파트 4개동 846가구, 오피스텔형 레지던스 1개동 160실 규모로 지어진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광주역 일대가 선정되며 광주역 복합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근에 조성되는 주거복합단지 분양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광건설은 광주의 중심인 동구 금남로에 ‘금남로 대광로제비앙’을 공급 중이다. 단지는 지하3층~지상 38층 4개동, 아파트 519가구 중 전용면적 84㎡ 15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오피스텔 42실과 상업시설 센트럴스퀘어도 함께 조성된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韓 조세재정정책 소득재분배 효과 ‘꼴찌’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빈곤 탈출률 OECD 28개국 중 최저

한국 조세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면 여러 복지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과 민지원 연구원은 11일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국제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조세 재정정책에 따른 빈곤 탈출률은 OECD 28개국 중 가장 낮다”고 밝혔다.

한국은 조세 재정정책에 따른 빈곤 탈출률이 19.5%에 그쳤다. 빈곤 탈출률은 정부 정책 전(시장소득 기준) 저소득층(균등화 중위 소득 50% 미만)이 정부 정책 후(가처분 소득 기준) 중산층이나 고소

득층으로 이동한 비중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정부지원금, 연금보험 수령액 등을 모두 합해도 80.5%가 여전히 저소득층으로 남아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빈곤 탈출률은 OECD 평균(64.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덴마크, 헝가리, 체코, 네덜란드 등 상위 국가의 빈곤 탈출률은 80%를 넘는다.

정책의 소득 개선 효과도 미약했다. 한국 저소득층의 정부 정책 전 소득은 중위 소득의 25.3%, 정책 후 소득은 중위 소득의 36.8%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소득 개선 효과가 11.5%포인트에 그친다는 의미다.

반면 OECD 회원국은 저소득층의 정책 전 소득이 중위 소득의 13.7%였다가 정책 후 75.8%까지 확대해 소득 개선 효과가 62.1%포인트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의 빈곤 탈출률, 소득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한국의 빈곤 탈출률은 모든 연령층에서 OECD보다 낮았는데 특히 60세 이상에

서는 24.1%로 OECD 평균(80.8%)과 격차가 가장 컸다.

아울러 60세 이상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 효과는 16.5%포인트로 OECD 평균(86.3%포인트)에 크게 미달했다.

연구팀은 한국의 정책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OECD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연금 도입 기간은 약 20년으로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 기간이 짧다.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도 39.3%로 OECD 평균(58.7%)보다 낮았다.

조세 부담률도 한국(19.4%)이 OECD 평균(25.1%)을 하회했다.

연구팀은 “조세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개인의 사회적 부담과 복지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휘발유·경유 19주만에 하락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유류세 인하 효과로 19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당 평균 29.7원 하락한 1660.4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표시된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 /연합뉴스

“美 수출제한… 中 반도체 발전 지체될 듯”

미국, D램 양산 차질 생겨 공급 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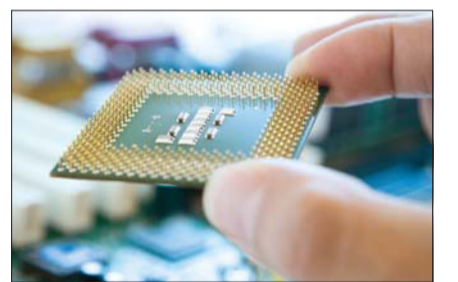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중국 반도체산업 발전이 상당 기간 지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11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된 ‘미정부의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의 배경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3대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푸젠전자(Fujian Jinhua)에 대한 미국 기업의 생산장비, 소프트웨어 수출, 기술이전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중국 정부 주도의 반도체 육성 정책에 대한 견제방안의 일환이다. 미국은 푸젠전자가 D램 양산 능력을 갖출 경우 미국 반도체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미국 군사시스템에 필요한 핵심부품인 반도체 조달에 심각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중국 ‘중국제조 2025’의 일부로 10년간 1500억달러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현재 20% 미만의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에는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 국영기업인 푸젠전자는 2016년 5월부터 56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D램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조치가 푸젠전자에 대한 미국 기업의 생산장비, 소프트웨



어 수출, 기술이전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D램 양산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 생산기계 비중이 전체의 28%에 달해 생산장비 공급에 난항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 정부는 자국 메모리칩 생산 업체인 마이크론의 영업비밀을 절취했다는 혐의로 푸젠전자와 대만 반도체 기업인 UMC 직원들을 기소한 상황이다. 미 정부는 이번 수출제한 조치로 푸젠전자의 기술발전이 자국 기술이 이용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한은은 이번 조치가 푸젠전자의 양산 계획과 기술발전이 지연됨은 물론 중국 반도체산업 발전도 상당 기간 지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미 정부의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견제를 나타내고 있다”며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반도체 기술 개발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창업 고용 확대 효과, 서비스업보다 제조업 더 커

한은 BOK경제연구 보고서

장기적으로 지역 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제조업 창업은 큰 반면 서비스업 창업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의 BOK 경제연구에 게재된 ‘창업의 장기 고용효과: 시군구 자료분석(조성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기호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후 10년간의 총 효과를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지역 내 창업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제조업의 고용 증가는 3.30%포인트 상승했다.



3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내 홍보관인 딜라이트를 찾은 학생들이 반도체 홍보 전시물을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보고서는 지난 2004~2016년까지 시·군·구 단위를 토대로 창업이 장기적으로

역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제조업 창업은 고용 확대 효과가 컸다. 창업 이후 이듬해까지는 직접고용이 대폭 늘었다가 3~6년까지는 대체효과로 오히려 줄었다. 그러나 창업 이후 7~10년 사이 간접고용이 다시 늘면서 전체적으로 고용이 확대됐다.

특히 고위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항공) 및 중·고위기술(기계·자동차·석유화학 등) 제조업에서 특히 공급 측면 간접 효과가 나타나면서 순고용 확대 효과가 크게 발생했다.

/김희주 기자 hj89@

한화생명 ‘63빌딩 계단 오르기’ 이색 마라톤

한화생명은 11일 본사가 있는 여의도 63빌딩에서 ‘Lifeplus 한화생명 63계단 오르기’ 대회를 열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63빌딩의 1251개 계단을 오르는 행사다.

630명의 참가자 가운데 기록경쟁 부문은 김두진(41)씨가 남자부에서 8분 7초의 기록으로 2년 연속 우승했다. 여자부 우

승자는 김미연(27)씨이며 기록은 11분 47초다.

이색 복지 부문에서는 ‘슈퍼마리오’ 복장으로 5명의 친구가 함께 완주한 참가자들이 우승을 차지했다.

최연소 참가자는 김승혁(1)군, 최고령 참가자는 김문남(75)씨다.

/김문호 기자 kmh@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 16회 63계단오르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NAVER 성산일출봉 스위트엠 프레시빌

내 집에서 성산일출봉과 바다를 품다! 세컨하우스+실거주+투자(임대)

우도 (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봉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 제주최초 스테이크이전하우스
SWEET M 프레시빌

〈제2공항의 높은비전〉 다시없을 투자기회, 매력적인 특별혜택

1가구 2주택
해당없음

9.13 대책의
최대 수혜지

중도금전액
無이자

분양권 전매
가능

제주도차고지증명제시행
100% 자주식
주차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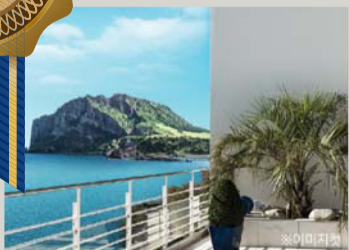


제주의 감동을 담아! 당신의 바람을 담아!
가장 제주다운 공간을 드립니다

우도·한라산 조망 3면 바다뷰
마트/학교/병원 등 생활 인프라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등 관광 명소
테라스가 있는 프리미엄 주거(일부)

제주 제2공항(추진중)
10분대 비전 입지



조망을 극대화한 테라스 설계
(일부세대)



단지 중앙 옥외중정



100% 자주식 주차장
(오피스텔 실당 1대, 연립주택 세대당 1.7대)



빌트인 시스템



원스토피프를 누리는 주거 편의시설

성산일출봉 제주최초 스테이크이전하우스
SWEET M 프레시빌

오피스텔
연립주택 분양중

시행 M+ 대한토지신탁(주) DAEHAN REAL ESTATE TRUST CO., LTD. 시공 서원 SEOWON 위탁 주서우A&D



분양 문의
02-553-4200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대한토지신탁(주) *등록번호: 서울080011 *주요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17, 26층(성신동 아셈타워) *시행사: 대한토지신탁(주) *시공사: 서원종합건설(주) (주)서원(주) *위탁사: (주)서우A&D *분양대행사: (주)에이치에이 *대지위탁계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26-1(제2번지 외 4필지) *규모 및 용도: 지하3층-지상7층, 오피스텔, 연립주택, 부대편리시설 *대지면적: 26,272㎡ *연면적: 15,751.30㎡ *최종 인·허가: 내용에 따라 면적 및 일정 등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올바른 권익보호를 위해 법정 거래 단위(㎡)를 사용합니다. *본 홍보물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와 일러스트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권보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차 용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상기 개발계획 관련 사항은 해당 사업주체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취소 및 축소,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히비 엇갈린 '게임 3N'... 넥슨, 신작 14종으로 성장 주도

넥슨, 장기 흥행장 성장 견고
엔씨·넷마블, 실적 뒷걸음질
지스타 2018서 신작 봇물

게임업계 '3N'으로 불리는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선두3사의 3·4분기 실적이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은 실적이 뒷걸음질치던 반면, 넥슨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어나며 히비가 교차했다.

주 52시간 근무 도입 등 국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작 출시가 지연된 탓이었다. 게임사들은 내년 본격적으로 '리니지', '블소&레볼루션' 등 유명 지식재산권(IP) 기반 신작들을 출시해 실적 개선을 꾀할 방침이다.

11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연결 기준으로 넥슨은 3·4분기 매출 6961억원으로 15%, 영업이익은 2381억원으로 4% 늘었다.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장기 흥행작의 견고한 성장 덕이다. 반면,



이정현 넥슨 대표가 '지스타2018 프리뷰'에서 소개할 신작을 발표하고 있다.

넥슨

넷마블과 엔씨소프트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각각 39.8%, 58% 줄어들며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실적발표 이후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주 52시간 근무 도입 등 국내 환경 변화에 따라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며 "사업을 지속 확대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인력을 유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출시 예정이었던 3N의 대작들은 대부분 내년 출시로 미뤄졌다. 넷마블은 올해 출시 예정이던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과 글로벌 아이돌 방탄소년단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모바일 게임인 'BTS월드'의 출시를 내년으로

미뤘다.

엔씨소프트도 지난해 출시한 '리니지M' 이후 눈에 띄는 신작이 없는 상태다. 실적 성장을 이룬 넥슨 역시 지난해 15종의 게임을 출시했지만, 올해는 9종의 게임을 출시하는 데 머물렀다. 새 성장 동력을 이룰 신작이 절실한 상황인 셈이다.

이에 게임사들은 하반기부터 신작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3분기 유일하게 호실적을 기록한 넥슨은 당장 15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는 열리는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18'에서 14종의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과거 향수를 불러오는 PC온라인 게임들이 대거 모바일게임으로 부활할 전망이다. 1996년 출시한 넥슨 온라인게임 '바람의나라'를 비롯해 '크레이지 아케이드', '테일즈위버', '마비노기' 등이 배일을 벗는다.

이밖에 자체 개발적인 해양 어드벤처 게임 '데이브', 네 개의탑' 등도 선보인다. 자체 IP 게임인 모바일다중접속역할

수행게임(MMORPG) '트라하'도 내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넷마블과 엔씨소프트도 신작 출시에 전념할 계획이다. 넷마블은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 '세븐나이츠2',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 등 대형 IP 모바일 게임 3종과 'A3 스틸얼라이브' 등을 지스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연내 출시 예정이었던 'BTS 월드'는 내년 1분기 출시할 계획이다.

엔씨소프트는 기존 흥행작을 바탕으로 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며 신작 반등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내년 중 '리니지2M'을 시작으로 ▲아이온2 ▲블레이드&소울2 ▲블레이드&소울M ▲블레이드&소울S 등 모바일게임을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대형 신작들의 개발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고 출시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 내년부터는 신작 출시에 의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코웨이 '2019 CES' 앞두고 4개 제품 '혁신상'

코웨이는 내년 1월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2019 CES(소비자가전쇼)'를 앞두고 'CES 혁신상(CES Innovation Awards)'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 2016년 CES에 처음 참가한 이후 4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혁신적인 기술력과 디자인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이번에 CES 혁신상을 수상한 코웨이 제품은 ▲시루직수 정수기(CHP-7300R) ▲시루스탠드 정수기(CHP-5700R) ▲킹스맨 안마의자(MC-S01) ▲바다리프레서 연수기 등 총 4개 제품이다.

시루직수 정수기와 시루스탠드 정수기는 기존 CIROO(Coway Intensive Reverse Osmosis) 필터보다 면적과 정수량

을 각각 6배, 30배 높은 'CIROO 2.0 필터'를 탑재해 직수 방식을 구현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RO 멤브레인 필터를 장착한 정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탱크 없이 직수가 가능하도록 한 혁신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킹스맨 안마의자는 한방 의학을 접목한 혁신 제품으로 코웨이가 자체 개발한 온열테라피를 이용해 혈자리 온열 안마기능을 제공한다.

바다리프레서 연수기는 연수기와 라인 샤워 시스템이 합쳐진 아이디어 제품이다. 호수 라인을 내장형으로 설계해 깔끔한 외관을 구현했고, 연수 농도를 사용자의 컨디션과 외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조절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소기업중앙회 이원섭 회원지원본부장(왼쪽)이 한국협동조합학회 최경식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한국협동조합학회 단체회원 가입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협동조합학회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이원섭 회원지원본부장이 학회 부회장으로 위촉됐다고 11일 밝혔다.

협동조합에 관한 이론과 실제 연구를 목적으로 1982년 설립된 한국협동조합학회는 국내 대학교수, 연구원, 협동조합 임직원 등 300여명이 소속된 국내 최고 권위의 협동조합 학술단체이다. 학회에는 단체회원으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

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주요 협동조합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학회 부회장으로 위촉된 이원섭 본부장은 "이번 중기중앙회의 학회 가입을 계기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조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와 대기업과의 불공정 시정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가진 장점과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학술연구와 정책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협동조합 활성화는 물론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내 미세먼지 잡는 '생활 가전 3종' 인기

대우위니아 '공기청정기'

실시간 공기질 체크로 자동정화

SK매직 '플렉스 하이브리드 레인지'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배출 NO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최소한의 기름으로 맛있는 튀김요리

한파와 미세먼지가 함께 찾아오면서 환기에 대한 걱정 없이 실내 공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전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3년간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겨울철 난방이 시작되고 북서풍이 부는 11월부터 미세먼지 문제가 극심해지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10월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과 '한때 나쁨'을 부지런히 오갔다. 국내 오염물질과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져 미세먼지 농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11월 역시 전날에 이어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중국 정부는 석탄 공장 가동 중단 정책을 작년 대비 다소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옮겨올 한국의 미세먼지는 사상 최악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일은 한파, 사일은 미세먼지라는 뜻의 신조어 '삼한사미'는 올해도 여지없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비자들은 겨울철 한파와 미세먼지 공습에 대비해 실내에서나마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생활가전에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전 업계도 이러한 소비 흐름에 맞춰 공기 질 향상과 관련한 다양한 제품들을 앞다퉀 선보이고 있다.

◆실시간 공기 상태 감지... '위니아 공기청정기'

지난달 말 대우위니아는 공기청정기 신제품 4종을 공개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제품의 얼굴인 상단부에 있다.

공기 상태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우위니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공기 청정기에 디지털 센서를 적용했다. 토출부 상단에 위치한 전면 발광다이오드(LED)로 현재 실내 공



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공기의 상태를 체크해 자동으로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해준다.

섬세한 'PM0.5 디지털 공기청정 센서'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아세트알데히드 등의 각종 유해냄새를 세밀하게 감지한다. 이 센서가 오염된 실내공기를 감지하면 공기청정기 전면과 후면으로 공기 흡입 후 3중 필터를 거쳐 깨끗한 공기가 상부 토출구를 통해 360도 전 방향으로 배출된다. 필터를 통해 극초미세먼지를 제거하고 각종 생활악취 및 새집증후군 유발물질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기관지가 민감한 이들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다.

◆유해가스 없는 SK매직 '플렉스 하이브리드 레인지'

가스레인지 사용 시 발생할 경우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가스가 배출되는데 미세먼지 탓에 환기가 어렵다. 이에 소비자들은 음식 조리 시 유해가스 발생이 없는 전기레인지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레인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전용 용기 사용이 필수지만 화재의 위험이 덜한 인덕션과 사



용 용기 제한이 없지만 비교적 잔열이 오래 남는 하이라이트를 두고 고민한다.

SK매직 '플렉스 하이브리드 체인지'는 두 개의 인덕션과 하나의 하이라이트 화구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제품이다. 조리 시간 단축을 위해 3구 모두 동시 사용이 가능하며 안전을 위해 화력이 자동 구성돼 버너의 사용에 따라 화력이 제한되어 작동한다. 상판에 돌출부가 없어 행주만으로도 간단하고 편리한 청소가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다.

◆튀김 조리엔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기름이 많이 필요한 튀김 요리를 할 경우 유해물질이 평상시 주택 농도보다 약 2배 이상 발생한다. 이에 자취생 및 주부들의 주방 필수품으로 등극한 에어프라이어의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필립스 '에어프라이어'는 필립스만의 터보스타 기술로 최소한의 기름을 사용한 튀김 요리가 가능한 제품이다. 기존 튀김기보다 냄새 배출이 적을 뿐 아니라 세척이 간편해 평소 튀김 요리를 하기 부담스러웠던 자취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품은 음식이 겹쳐져 있어도 뒤집을 필요 없이 균일하게 튀겨주며 예열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빠르게 요리를 완성할 수 있다. 단순히 튀김 요리뿐만 아니라 베이킹과 구이 요리까지 가능해 활용도가 높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유례없는 한파 기록이 갱신되는 가운데 미세먼지의 악영향까지 겹쳐 쾌적한 실내생활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어떠한 질과 크기의 미세먼지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선보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성폭력·마약에 횡령까지... 양진호 형량 10년 넘을 듯

〈한국미래기술 회장〉

〈최대〉

위디스크 자금 2.8억 개인사용 재판서 혐의들 '유죄 인정' 되도 형량합산 안돼... 최대서 0.5배 가중



지난 7일 오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최대 형량은 징역 10년이 넘을 전망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합동 수사팀은 10일 양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지난 3월 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8000여만원을 개인 물품 구매 등에 임의로 사용했다고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종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이다.

지난달 공개된 동영상으로 공분을 산 혐의는 폭행이다. 형법은 사람을 폭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했을 경우, 같은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년도 안되는 폭행 형량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을 보면,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징역 2개월~10개월에 해당한다. 반면 보복목적 폭행은 징역 10개월~2년으로 경중 뉘다. 형이 가중될 경우 징역 1년~2년 6개월에 처한다. 양 회장은 7일 동영상 속 자신의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동영상 속에서 양 회장에게 폭행 당한 전직 위디스크 직원은 당시 양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위디스크 게시판에 작성한 뒤 사무실로 불려갔다.

양 회장이 2013년 12월 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한 대학교수를 위디스크 사무실로 불러내 집단 폭행했다는 증언도 나온 상태다.

양 회장이 인정한 또 다른 동영상에는 그가 2016년 가을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검과 활로 닭을 잡도록 강요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가 없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임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강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부분은 양 회장이 성범죄 동영상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웹하드 카르텔'이다. 경찰은 양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 위반, 성폭력특례법을 적용했다.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망법도 음란한 영상의 배포·판매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도 마찬가지다.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진다. 일본 성인용 동영상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 저작권을 인정받은 상태다.

◆최대형량은 업무상 횡령 '10년'

경찰은 양 회장을 웹하드 내 성범죄 영상 유통에 대한 중범죄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중범죄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해, 정범보다 형량이 줄어든다. 반면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것으로 보고 똑같이 처벌한다.

경찰이 최근 양 회장에게 추가 적용한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향후 재판에서 관련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해도, 형량 전부가 합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가장 중한 죄에 대한 형량에 0.5배를 더하는 '경합범에 대한 법정형의 가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죄가 여럿인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따르는 장기형의 1/2까지 가중된다. /이법종 기자 jaker@metroseoul.co.kr

정책브리핑

우분 '페이든든+통장' 오늘 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나 바코드를 활용해 결제하는 '포스트페이(Postpay)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우체국 페이든든+통장'을 12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적용금리는 우대금리 포함 시 최고 연 1.0%다. 우대금리는 포스트페이 이용실적에 따라 최고 0.5%포인트, 개인인 경우 적금 가입 또는 자동이체 시 0.2%포인트, 사업자인 경우 소상공인 정기에금 가입시 0.2%포인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0.2%포인트가 주어진다.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두 달 동안 새로 가입한 고객을 추천해 백화점상품권, 우체국쇼핑상품권을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간편결제 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고금리 예금상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고용보험 가입자 3.3% 증가... 33개월 만에 최대폭

〈전년대비〉

노동부, 10월 노동시장 동향 작년비 서비스업 40.3만명 늘어 실업급여 6019억 지급, 60% 급증

고용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3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 고용의 질적 개선이 진행 중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본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35만 5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43만1000명(3.3%)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2016년 1월의 44만명 이후 가장 큰 것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별 증가폭은 올해 들어 계속 커지는 추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에 들어온 취업자가 늘었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고용의 질적 개선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일용직,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고용의 양적 증감은 14일 통계청이 발표할 10월 고용동향에서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작년 동월보다 40만3000

명 증가했다.

음식·주점업(5만3000명)과 숙박업(5000명) 등도 증가 폭이 컸다.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해온 제조업 피보험자는 작년 동월보다 1만1000명 늘어 2016년 7월의 1만6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타 운송장비업은 지난달에도 1만1000명 줄어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감소 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업황 악화 등으로 올해 들어 계속 감소 중인 자동차업 피보험자도 1만명 줄었다. 건물 청소·경비 등을 포함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도 1만5000명 줄어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내년 中어선 입어규모 1450척 합의

해수부, 韓·中 어업협상 타결

우리나라와 중국은 2019년 중국어선 입어규모를 올해 대비 50척 감축한 1450척으로 합의했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부산에서 개최된 '제18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9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절차 및 규칙, 서해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우선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규모는 올해 150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450척으로 합의했으며 3년 연속 입어규모를 감축했다.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2척과 유망 18척, 어선규모가 큰 선망 8통(20척) 및 일반어획물운반선 4척 등이다.

특히,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

서 조업할 수 있어 우리 어업인과 조업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42척에서 36척으로 감축해 우리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국내법에 맞지 않은 중국 선망(위망)어선의 조업방식을 우리나라 선망어업과 동일하게 맞추는 등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해 중국어선의 변형된 어구어법 조업을 사전에 차단했다.

2016년 9월 중단된 한·중 잠정조치수역내 단속선 공동순시를 올해 내 재개해 동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하절기 휴어기 등 자국법령을 위반해 조업하는 어선 정보를 선적국 정부에 통보해 동 수역에서의 자원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해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국내 관계법령에 따른 어종별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관련 규정을 중국어선에 적용해 어린물고기 보호를 통해 수산자원 증대 등 지속가능한 자원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韓-아세안 교통장관회의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왼쪽)이 9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9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롬 푼땃타야파 이셋 태국 교통부 장관을 만나 양자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인력공단, 오늘부터 혁신 아이디어 공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달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 동안 '국민과 함께하는 HRDK 혁신제안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공단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분야는 사회혁신과 공단혁

신 분야다.

사회혁신 분야는 국민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주제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공단혁신 분야에는 ▲공공성 강화 ▲경제패러다임 전환 ▲국민신뢰 회복 등 3가지 주제로 아이디어를 받는다.

작성 및 제출은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1/6)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김재용 기자 juk@

주입식 아닌 맞춤형 공부법... '자기주도학습 교육' 인기

좋은책신사고 '신사고 멘토링' 동화세상에듀코 '상상코칭' 등 학습관리·멘토링·코칭 접목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선배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해지면서 교육업계에서도 학생 개개인에 맞는 공부법을 제시하거나, 공부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학습관리, 멘토링, 코칭 프로그램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사진은 스템융합교육기관인 이쿠스팀 수업 모습. 이쿠스팀 11월 정규과정은 오는 19일 개강한다. /이쿠스팀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해지면서 교육업계에도 이에 발맞춘 프로그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학습관리나 멘토링 또는 코칭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이 인기를 끈다. 일반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학생에 맞는 공부법을 제시하거나, 공부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게 이들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11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학습법 전문 교육기업 공부혁명대의 파닉스콘이 대표적인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서울 송파구에 본원이 있는 파닉스콘은 명문대 멘토의 학습코치, 자기주도학습을 결집한 신개념 공부습관센터다. 월 1회 학습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성적과 학습습관, 취약점 등을 파악해 개인별 맞춤 공부법을 제시한다.

자기주도학습은 주 2회 4시간씩 집중

진행된다. 상주하는 명문대 대학생 멘토들이 일일 학습 관리를 하면서 공부 습관도 돕는다. 오는 1월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공부법을 배울 수 있는 4주 과정의 윈터스쿨도 연다.

공부혁명대 송재열 대장은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나가는 자기주도학습을 위해서는 적절한 학습 코칭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교육업계에서도 고

과목 수업 등과 같은 티칭에 코칭을 접목한 수업이나 멘토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어, 수학, 영어 등 단일 과목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을 융합해 가르치는 스템융합교육기관인 이쿠스팀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한다. 수

업 방식은 로봇공학, 코딩융합, 메이커교육 등으로 학생 스스로 과학, 수학 등 다양한 과목을 융합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결과물을 발표하는 방식이다.

이쿠스팀 관계자는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학생 스스로 학습 방향성과 본질을 깨우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창의력이나 컴퓨터 사고력 등 21세기 인재에게 요구되는 소양을 갖추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쿠스팀 11월 정규과정은 오는 19일 개강한다.

동화세상에듀코는 자기주도학습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는 '상상코칭 애플리케이션'을 올해 출시했다. 일대일 방문코칭 프로그램인 '상상코칭'을 앱으로 연계한 것으로, 학습습관 관리와 KCPA 진단검사, 5분 포인트 강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진단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최적화된 진로나 학습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습관 관리를 통해 과목별 학습 시간을 기록해 실시간 점검도 가능하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대상 지도교사 전문 코칭 시스템을 도입한 푸르넷공부방은 학생들의 공부·생활 습관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가

정과 비슷한 공간에서 소규모로 진행해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특성에 맞춘 학습 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금성출판사의 초등 전과목 학습지인 푸르넷, 온라인 학습 사이트 푸르넷 아이스쿨과 연계한 학습 시스템을 갖추고 학교 진도에 맞춰 전과목을 공부할 수 있다. 또 수학, 논술, 한자, 역사 등 과목도 특강으로 학습할 수 있다.

좋은책신사고는 중·고등학생을 타겟으로 '신사고 멘토링' 서비스를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이다. 자기주도학습으로 입시에 성공한 대학생 5명이 멘토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학습 계획이나 과목별 전략 등 노하우를 담은 학습 칼럼과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누적 상담건수는 약 9000건, 멘토 칼럼은 1000건에 달한다. 대학 진학에 성공한 선배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좋은책신사고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기르도록 초등 우공비 공부달력, 중고등 스터디 플래너를 자체 제작해 증명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간절한 마음으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올 앞둔 11월 서울 조계사 진신사리탑 앞에서 한 시민이 자녀의 수능대박을 기원하며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전, '한전공대 부지 선정' 발표 가시화

절차·방법 등 로드맵 공개 부지선정전문가족 구성

'한전 결정에 따른다'는 광주·전남 지자체의 합의로 준비 작업에 착수한 한국전력이 조만간 한전공대 부지선정 로드맵을 발표할 전망이다.

11일 한전공대설립단에 따르면 한전은 용역사인 'A.T.Kearney'가 부지선정 절차와 방법을 확정해 제안하면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전 측은 로드맵 발표의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용역 최종보고회와 함께 부지선정 절차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로드맵

발표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전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용역 과정에서 부지선정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동남권 신공항, 제주 신공항 등 추진 과정에서 용역절차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돼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것을 의식한 것이다.

용역사는 자체 인력풀로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할 방안과 함께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등이 공동 성명을 내고 "한전공대 부지는 일체의 정치적·지역적 고려 없

이 최선의 부지를 한전이 선정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용역 내 전문가위원회의 입지선정' 절차에 착수했지만, 목포 지역에서 시민위원회를 발족하고 유치전에 뛰어드는 등 지역 간 유치경쟁은 여전하다.

한전은 지역 간 유치경쟁을 고려해 부지선정을 용역 내 전문가위원회에 일임하고, 구체적인 개입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전공대설립단 관계자는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대외적인 반대 여론과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어려움이 있지만, 늦어도 내년 초까지 부지선정 절차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없다"며 "부지선정에 용역사의 스케줄이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복혜경 기자 bcy2020@

삼육대, '하워드 리父子 특별전시회'

삼육대가 제3대 교장인 하워드 리의 특별전시회 '세 가지 사랑의 흔적: 교회사랑, 삼육사랑, 한국사랑'을 23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연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 개교 112년을 맞은 삼육대의 기틀을 다진 미국 선교사 하워드 리(Howard M. Lee, 한국명 이희만), 도널드 리(Donald Lee, 한국명 이단열) 부자(父子)의 발자취를 더듬는 자리로 마련됐다.

하워드 리는 미국 사우스 랭캐스터 아카데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1910년 4월 조선 땅을 밟았다. 삼육대의 전신 의명학교 총무를 역임하다 이듬해 초 제3대 교장에 취임했다.

그는 20년 이상 의명학교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남녀공학, 기숙사제도, 실업교육을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해 정착시켰고, 다양한 학교운영 체계를 마련하며 교육사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남겼다고 삼육대 관계자는 밝혔다.

도널드 리는 아버지 하워드 리의 선교

활동으로 의명학교가 있던 평안남도 순안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1940년 오리건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전란 직후인 1954년 한국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삼육신학원(삼육대 전신) 원장에 취임했다.

도널드 리는 교육학을 전공한 교육 행정자답게 학칙과 학교 행정, 교육 시설 등 전란 이후 열악한 교육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대학 수준에 걸맞은 환경을 갖추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다. 도널드 리는 이번 공로로 1959년 정부 공보실 주관 아래 거행된 기독교 한국선교 75주년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장을 받았다.

이번 전시회는 도널드 리 선교사의 유족인 샌디 리(Sandy Lee Gibb) 씨 등이 올해 초 삼육대 박물관에 유품을 기증하면서 마련됐다. 전시되는 유품은 총 130여 점으로 사진, 고서, 교육자료, 민속품, 손으로 그린 의명학교 배치도 등 당대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삼육대 측은 설명했다. /이범종 기자

성균관대 신임 총장에 신동렬 교수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교(이사장 서정돈)는 지난 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21대 성균관대 차기 총장에 신동렬(申東烈, 62세·사진)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새 총장 임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다.

신 총장 선임자는 1956년생으로 서울 이고향이며 △용산고등학교 △성균관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 △조지아공대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성균관대 제어계측공학과 교수로 임용돼 정보통신대학장(5연임), 성균융합원장을 역임하며 교육과 행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한용수 기자

수능 다음날 이대서 '종로학원 대입설명회'

수능 다음날인 16일 오후 3시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종로학원 2019 대입설명회'가 열린다.

종로학원은 서울 설명회에 이어 11월 25일까지 부천, 인천, 일산, 분당, 평촌, 세종, 대구, 대전, 부산, 광주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주요 대학의 논술시험은 수능 이틀만에 열린다. 17일~18일 연세대, 성균관대, 경희대, 서강대가 논술시험을 치른다. 그 다음주에는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에서 논술시험을 실시한다. 서울대와 고려대에서는 면접시험을 치른다.

이번 설명회에서 종로학원은 ▲가채점 토대 정시 지원가능 대학 가능 배치참고표 제공(참가자 전원) ▲금년도 수능 정시 유불리 과목 집중분석 ▲영어2, 3등급대 이하 서연고 및 주요대 합격 전략 ▲탐구2과목 유불리 점수에 따른 최상의 대학 지원전략 ▲금년도 정시 의치한 합격전



의 핵심 변수 분석 ▲전년도 대학별 합격점수 모두 공개 ▲금년도 논술, 면접 응시여부 가이드 라인 제시 ▲정시 원서접수 직전까지 체크해두어야 할 입시정보 모두 제공 ▲2019학년도 대학 학과별 변화에 따른 유불리 집중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 연사로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이사,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 김명찬 소장, 종로학원오종운 평가이사, 종로학원개발원 장문성 원장이 참여한다.

참가신청은 종로학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사전 예약 후 설명회 실제 참석자에 한해 당일 설명회 자료집, 배치참고표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도 제공된다. /이범종 기자 joker@

alton
DO THE BEST, BE THE STYLE

www.altonsports.com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기자전거
Ealton



E-ALTON INNOZEN

자전거 전용 도로 진입 가능 (PAS 전용모델에 한함)

- 삼성 SDI 리튬 이온 배터리 3-4 시간 완충
- 완충 시 60km 주행 가능
- 전국 A/S망 구축



'5G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논의 장 연다

과기부 '5G 버티컬 서밋 2018'
13~14일 서울프라자 호텔에서 개최



통신기술협회(TTA), 한국통신학회(KICS), 5G 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프로그램은 ▲ 해외 주요 전문가들의 기조연설 ▲ 국내외 기술·서비스 동향 ▲ 참석자들 간 패넬 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관람객이 5G 융합서비스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부스도 함께 운영한다. 화재, 지진 등 재난·안전 대응 서비스,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스마트공장 솔루션 등이다. 행사 참가비는 무료다. 온라인 사전 등록이나 행사당일 현장 등록을 하면 된다. /김재웅 기자 juk@



국민연금, 글로벌 수탁은행 SSBT 전주사무소 개소 추진
국민연금공단이 글로벌 수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SBT)의 전주사무소 개소를 추진한다. 공단은 지난 9일 본부에서 SSBT와 해외투자 자산 관리업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글로벌 투자 자산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관·관리 등을 위해 지난 9월 SSBT를 해외 주식·대체자산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과 조셉 홀리(Joseph L. Hooley)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한화갤러리아, 희망트레이너 페스티벌 개최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10일 충남 예산 리솜리조트에서 전국 6개 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소속 취약계층 아동 75명이 참여하는 '희망트레이너 페스티벌'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갤러리아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트레이너'에 참여 중인 전국 각지의 아동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축제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화갤러리아



도미노피자 '배달 안전 캠페인' 실시
도미노피자가 안전한 배달 문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배달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미노피자가 발표한 '안전 운전 항목'은 헬멧, 무릎 보호대 등 운행 전 보호장구 착용과 운전 시 황색 불, 횡단보도, 전방 주시 태만 등 교통 위반 금지 사항, 과속방지턱, 제동 거리, 골목길 및 커브길 주행 주의와 같은 방어 운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도미노피자

티웨이항공, 11~12월 임박편 특가이벤트

편도 기타큐슈 4만8400원 부터



티웨이항공이 올 연말까지 당장 떠날 수 있는 '11~12월 임박편 특가 이벤트'를 실시한다.

11월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8일까지 일주일 간 항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면 된다. 인천과 대구, 부산, 김포, 제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대상으로 탑승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다.

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국제선 편도 총액 운임 최저가격은 기타큐슈 4만8400원, 후쿠오카·오사카 5만3400원, 구마모토 5만8400원, 칭다오 6만400원, 오키나와 6만1400원, 가오슝·타이중 7만4400원, 하노이 10만7000원, 다낭 10만7900원, 랴오 15만520원 등이다. /양성운 기자

원고료 2만원의 충격



홍경안
시시일각

몇 해 전, 모 지자체가 주최하는 미술행사의 주요 위원직을 맡은 적이 있다. 행사전반의 운영방향을 결정하고 예산까지 들여다보는 막중한 자리였다. 하지만 1년 만에 그만뒀다. 아니, 정확히 말해 권력을 전 핵심인사에게 뱉겨 그의 '패밀리'에서 제외되었다는 게 맞았다. 당시 감정을 글로 옮겨보면 그야말로 '썩쓸거거나 흠뻑거거나'였다. 어딜 가나 존재하는 계파와 코드, 지연과 학연을 배경으로 한 패거리정치의 민낯에 썩쓸었고, 수정되지 않을 것을 느끼면서도 매번 부딪히고 좌절하던 과정을 그만해도 된다는 점에선 흠뻑했다. 책임의 무게에 미치지 못하던 대가의 불균형을 더 이상 체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도 미련에서 멀어진 이유였다. 물리적 거리만 해도 하루를 온전히 소비해야 하는데, 몇날 며칠의 연구와 고민을 거쳐 서너 시간 이상 회의의 또는 토론에 임한 보수직군 매우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이 중 미술매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임금 노동구조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4월 정부까지 나서 '미술진흥중장기계획'을 발표하며 비평가에 대한 처우개선 및 양성 기조를 밝혔지만 한해가 저무는 오늘까지도 달라진 건 별로 없다. 여전히 6000원 수준의 고료를 책정한 채 평론을 청탁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기관이 드물지 않고, 각종 수당 역시 겨우 몇 만원에 불과한 곳도 수두룩하다. 심지어 한 달 내내 작성한 평론을 보냈더니 원고료로 달랑 2만원을 입금해 충격을 안긴 지역재단도 있다. 살아가는 곳은 현실인데 노동의 대가는 초현실주의적인 현재를 말하면 혹자는 '안하면 그만이지 않느냐'고 되묻는다. 그렇다. 그런데 스스로도 민망해서인지 기관 담당자들은 대체로 섭의 승낙 후 또는 현장에서야 상세한 안내를 한다. 설사 알게 된들 돈 몇 푼에 연연하는 쫓겨난 사람인 냥 취급될 듯싶어 평론가들의 다수는 노동의 값이 얼마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원체 돈 얘기를 꺼리는 미술계 분위기에다 무언가에 기여한다는 사명감, 책임감, 역할론 따위가 대두될 경우 마음과 달리 입은 더욱 무거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니다 싶어 공식적으로 항의한 경우도 있다. 전업비평가가 손에 짚히는 상황을 인지한다면 현재의 일도당도않은 보수체계는 개선되어야 마땅하고, 그러하지 못한다면 훗날

후배들에게 선배들의 사례가 하나의 원칙으로 적용될 것이란 판단에 책임과 역할에 상응하는 대가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그럴 때마다 기관 관계자들은 '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개인적으로야 턱없이 부족함을 이해하지만 그 더디고 복잡하며 개념 없는 행정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보니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을 바꿔야 하는데 그조차 쉽지 않은 모양이다. 미술계 생태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행정이 전문성을 떨어뜨린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수를 외면하는 정책자들의 낙후된 인식은 관련 인적 기반을 위축시키고 많은 부분을 아마추어화한다. 물론 짜들은 인적 기반은 한국문화예술의 질적 경쟁력 면에서도 좋을 게 없다. 그러나 우리네 행정은 이런 자각에 인색한 게 사실이다. 공공기관들은 열정과 애정을 빌미로 한 재능기부라는 병풍 속에 전문가들을 앉히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 제대로 된 소명의식을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누군가의 경험과 지식, 노동과 시간은 공짜가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 특히 초라한 대가와 직함을 교환하느라 짐짓 모른 체 해온 미술계 문화공예사들 또한 스스로를 성찰해야 옳다. /미술평론가

기아차 노사, 전남 화순에 1억 상당 후원품 전달

경로당·복지시설·저소득 가정에
TV·전기밥솥·세탁기 등 지원



기아자동차 노사가 광주공장 인근 농촌 지역에 1억원 상당 후원품을 전달했다. 11일 기아차에 따르면 강상호 기아차 노조지부장과 송교만 노무지원사업부장 등 노사 관계자 20여명이 지난 9일 전남 화순군을 찾아 이웃돕기 물품을 전달했다. 기아차 노사는 경로당과 복지시설, 저소득 가정에 전해달라며 TV, 전기밥솥, 세탁기, 컴퓨터, 김치냉장고 등 1억원 상당의 생활 물품을 맡겼다. 노사는 2008년부터 강원 횡성, 전북 장수, 충남 청양 등 농촌 지역에 총 110억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또 교통사고유

기아자동차 노사가 광주공장 인근 농촌 지역에 1억원 상당 후원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

자녀 장학금 지급, 복지시설 후원, 김장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과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기아차 관계자는 "겨울이 다가오는데 소외이웃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회공헌활동과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인사

-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신재생에너지정책담당장 황수성 ◇국장급 전보 △산업기술정책관 김현철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이상훈 ◇과장급 전보 △산업기반총괄과장 박동일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신지현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 서정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 송정수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임재덕

부음

- ▲ 강일환씨 별세, 강진수(최동원기념사업회 사무총장)씨 부친상 = 11일 오후 3시 5분, 부산시민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8시, 051-636-4444
- ▲ 조갑희씨 별세, 조용(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씨 부친상 = 10일 오전 6시 2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6시, 02-2227-7584
- ▲ 손여락 씨 (전 상주시 안전행정국장) 모친상 = 11일, 상주제일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9시, 장지 청리면 청하리 선영, 010-9892-6435



맥도날드, '주방 공개의 날' 성료
맥도날드는 지난 9일과 10일 진행된 '주방 공개의 날' 행사가 성료됐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274개 매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사전 신청 고객만 4000여명에 달하는 등 시작 전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고객들은 평소 들어가지 못했던 맥도날드 레스토랑의 주방 내부를 둘러보며 햄버거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품질과 보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햄버거가 만들어지는 주방의 위생 관리와 조리 과정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맥도날드만의 차별화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경험했다. /맥도날드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11월, 온라인몰 매출에 날개 달았다

이베이코리아

빅스마일데이 판매량 60% 증가

11번가

타임딜 행사로 17만개 상품 완판

국내 온라인몰이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내세우며 진행한 11월 쇼핑 할인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일부 업체는 지나치게 적은 물량의 품목을 전면에 내세워 ‘미끼상품’으로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월 업계에 따르면,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빅스마일데이’ 행사를 진행한 결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늘었고, 판매량은 60% 가까이 증가했다.

빅스마일데이 행사 첫날인 1일 하루에 만 1초당 52개 상품을 팔아치우며 하루 누적 판매량 454만개를 돌파했다. 이런



11번가, 십일절 페스티벌 지하철 홍보

/11번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9일 오전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은 2600만개를 넘었다.

특가 상품인 ‘애플 에어팟’은 14억원가량 물량이 반나절 만에 완판됐으며,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는 준비 수량 730대가 완판되며 3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팁스(VIPS) 1만5000원 식사권’

은 90% 할인해 1500원에 판매한 결과 32만개 이상이 팔렸다.

국내 온라인몰 가운데 11월 세일 행사를 가장 처음 도입한 11번가는 매출 신장률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초 목표치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11번가 측은 “그동안 축적한 빅데이터

를 기반으로 1638개 브랜드와 함께 지난해보다 2~3배 많은 품목을 준비했으며, 300여 차례 ‘타임딜’(특가행사)을 통해 약 17만개의 상품이 완판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특히 ‘케이크 중고차 110만원 할인 쿠폰’ 100장이 39초 만에 완판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LG 건조기’는 27억원 어치가 판매되며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다.

위메프가 기존 최대 일거래액 규모를 60% 뛰어넘는 신기록을 수립했다. 위메프는 1일 거래액 480억원을 달성, 지난 4월 4일 ‘44데이’ 당시 기록한 역대 최대 일거래액 300억원을 크게 넘어섰다. 당일 위메프를 방문한 고객(UV: Unique Visitor)도 260만명에 달했다. 평소 일 UV가 150만명에서 160만명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이날 하루 100만명 이상이 추가로 위메프를 찾은 것이다.

1~8일 거래액은 지난해 동기대비 87% 신장했다. 이 기간 결제 건수는 36% 늘었고, 신규 가입자 수는 187%나 급증

했다.

티몬의 경우도 초특가 행사인 ‘타임어택’을 진행한 1일부터 8일까지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타임어택 행사가 진행된 매일 정오와 오후 6시 무렵에는 티몬 모바일·PC에 접속하는 트래픽 양이 평소의 7배 이상에 이를 정도로 많은 소비자가 몰렸다.

한편, 일부 업체에서는 특가 상품으로 홍보하면서 물량을 지나치게 적게 준비하고 준비 수량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아 소비자로부터 맹비난을 받기도 했다. 위메프 에어팟(11월 5일 500개 판매), 티몬의 LG전자 노트북(11월 1일 10대 판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업체가 동시에 세일 행사를 진행하면서 홍보 효과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더욱 올라간 것 같다”며 “경기지표가 악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최저가 수준의 특가 행사가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원성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GS25 1~2인용 ‘한 끼 과메기’ 출시

GS25는 1~2인이 먹기 적당한 양의 ‘한 끼 과메기’를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GS25가 판매를 시작한 과메기는 주산지인 포항 구룡포에서 공치를 해풍에 밤낮으로 건조시켜 특유의 감칠맛이 살린 상품이다. 5마리가 손질돼 있으며 동봉된 초고추장과 함께 바로 취식이 가능하다.

GS리테일 수산식품 담당 MD는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과메기를 찾는 고객이 많지만, 식당이나 마트에서는 최소 2~3인분이 대부분인 것에 주목했다. 1인 가구 고객이 제철을 맞아 한 번쯤 맛보고 싶지만 그 양과 가격이 부담스러웠던 것에서 착안해 가까운 편의점에서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가격의 과메기를 출시했다.

또한 GS25에서 5년 전부터 판매해 오던 삭힌 홍어가 올해부터 갑자기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도 과메기 출시의 배경이었다.

삭힌 홍어는 지난해 500여점포에 불과했던 판매 점포가 올해 7000여 점포로 늘어나면서 고객들에게 호응을 끌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한 달 동안 3만개가 판매됐으며 꾸준히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GS25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한 끼 분



GS25의 ‘한 끼 과메기’.

/GS리테일

량으로 소포장 된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에 없었던 소포장 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 GS25가 한 끼 채소, 한 끼 찌갈, 한 끼 스테이크, 소포장 과일 등을 선보여 인기를 끌면서 1월부터 11월 9일까지 전년동기대비 신선식품 카테고리 매출이 58.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윤세영 GS리테일 MD는 “1~2인 가구가 편의점에서 근거리 쇼핑을 즐기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그동안 판매하지 못했던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고 고객의 expectations를 뛰어넘는 상품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중기중앙회·중소학회

중기 발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 열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협회는 16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저성장 시대의 중소기업 발전’을 주제로 ‘2018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학술대회에서는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과제’에 대한 기조연설에 이어 오동운 동아대 교수와 도모호로 세키 일본 동지시대 교수가 각각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과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정책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과 현장 질의·응답을 한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

은 “한국경제가 저성장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경제·사회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마음껏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계학술대회 일환으로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독일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 배경을 조명하는 ‘독일 중소기업 우수사례 발표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떡·떡볶이 수출 늘었다… 新 K-푸드

지난해 수출액 1565만 달러

글로벌 시장서 현지화 성공

떡과 떡볶이의 수출이 늘고 있다. 해외에서 건강식이자 새로운 한류 아이템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11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떡 수출액은 1565만달러(약 176억원)로 전년 1210만달러(약 136억원)보다 29% 증가했다.

연도별 떡 수출액은 2013년 635만달러(약 72억원), 2014년 715만달러(약 81억원), 2015년 888만달러(약 100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수출액을 2013년과 비교하면 5



년 만에 147%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수출량은 4931t에서 7851t으로 60% 증가했다.

aT는 떡과 떡볶이가 글로벌 시장

서 현지화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에서 떡볶이가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핫 아이템’으로 부상했다. 베트남에서도 떡볶이를 비롯해 김밥, 라면을 판매하는 분식점들이 생겨났으며, 호찌민에 오픈한 편의점 GS25호점에서는 오픈 당일 한국식 떡볶이가 300개 이상 팔리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떡볶이 수출액이 6743만엔(약 7억원)으로, 전년보다 337% 이상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 떡류의 소매시장 규모는 1122억원으로 전년 143억원보다 8% 올랐다. 지난 2013년(629억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78.3% 증가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빨리 팔리는 중고차는? 국산차 ‘레이’ 수입차 ‘E클래스’

SK엔카닷컴 평균 판매 기간 조사

SK엔카닷컴이 최근 SK엔카 플랫폼에서 거래된 차량의 평균 판매 기간을 조사한 결과 국산차는 기아차 레이, 수입차는 벤츠 E클래스가 가장 빨리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SK엔카닷컴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3개월 동안 SK엔카에 등록된 매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과 신뢰도를 위해 해당 기간 동안 100대 이상 거래된 모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국산차는 2018년식 기아차 더뉴 레이가 16.07일로 가장 빠른 판매 기간을 기록했다. 중고차의 주요 고객층이 젊은 세대인만큼 생애 첫차로 비교적 가격대가 저렴해 부담이 적은 경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높은 인기를 끄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현대 2018년식 싼타페 TM과 2016년식 기아 니로가 각각 16.44일, 18.51일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4.5위에는 현대 싼타페 더 프라임(2017년식, 18.76일)과 기아 올 뉴 모닝(2018년식,



기아차 레이.



벤츠 E클래스.

18.99일)이 올랐다.

수입차는 신차 시장에서 1위를 독주하고 있는 2018년식 벤츠 E클래스가 평균 판매기간 21.12일을 기록하며 중고차 시장에서도 높은 브랜드 선호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 하반기 초 BMW 화재 문제로 인해 5시리즈에 대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며 동급의 중형 세단인 벤츠 E클래스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 벤츠 E클래스는 4위 아우디 2016년식 A6(평균 판매일 27.65일)을 제외하고 5위 안에 4개 모델이 포함될 수

입차 부문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2위:E클래스 W213 2017년식/23.8일, 3위:E클래스 W213 2016년식/24일, 5위:E클래스 W212 27.65일 순)

차종 별 평균 판매기간 분석 결과 경차가 21.67일로 가장 빨리 판매됐고 이어 SUV가 21.77일, RV가 23.73일로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비교적 비용 부담이 적은 경차의 꾸준한 인기와 더불어 아웃도어 활동을 취미로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최근 트렌드에 따라 SUV와 RV 차량의 수요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성문 기자 ysw@

새로 나온 책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만나는 사람들

2017년 맨부커상 수상작. 소설은 링컨 대통령이 어린 이들을 잃은 후 무덤에 찾아가 아이들의 시신을 안고 오열했다는 실화를 모티브로 했다. 소설가 손더스는 워싱턴을 방문했다가 지인에게서 링컨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링컨의 셋째 아들 윌리가 장티푸스에 걸려 열한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세상을 뜨자 비탄에 잠긴 링컨이 몇 번이나 납골묘에 들어가 아이의 시신을 꺼내 안고 오열했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손더스는 머릿속에 링컨기념관과 피에타가 합쳐진 이미지를 떠올렸다. 이 이미지는 소설의 출발점이 됐다.

‘바르도’는 ‘이승과 저승 사이’, ‘세계의 사이’를 뜻하는 티베트 불교 용어로 죽은 이들이 이승을 떠나 저세상으로 가기 전 머물러 있는 시공간을 가리킨다. 소설은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윌리 링컨과 바르도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의 대화로 서사를 이끌어가는 독특한 형식으로 구성됐다.

바르도에 있는 40여 명의 영혼이 각자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링컨과 그 시대에 관한 책



바르도의 링컨

조지 손더스 지음/정영목 옮김/문학동네

과 서간문, 신문 등에서 인용한 문장들로 이뤄진 챗봇이 책 사이사이에 들어와 있다.

소설의 묘미는 ‘바르도’를 떠도는 영혼들이 저마다 가진 매듭을 풀면서 삶에 대한 미련과 슬픔, 분노와 집착을 털어내고 진정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영혼들은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둘 진정한 죽음의 세계로 향한다. 손더스는 죽은 영혼들의 목소리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인간의 존재 조건에 대해 탐구하게 한다. 500쪽. 1만5800원.

/김현정기자 hjk1@

떨림과 울림

김상욱 지음/동아시아



우리의 몸, 발을 딛고 선 땅과 흙, 매일 마주하는 노트북 모니터와 휴대전화까지.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라는 단위로 이뤄져 있다. 우리의 손가락 끝에 있는 탄소 원자는 우주를 떠돌다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지구에 내려앉았다. 이후 시아노박테리아와 이산화탄소, 트라케라톱스, 사파를 거쳐 몸에 들어와 포도당의 일부로 몸속을 떠돈다. 인간의 탄생과 죽음은 단지 원자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과정이다. 물리학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세계를 소개한다. 272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수면의 과학

사쿠라이 다케시 지음/장재순 옮김/윌유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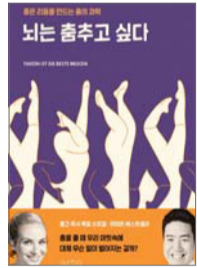


랜드 가드너는 264시간(11일) 동안 잠을 자지 않아 최장기간의 불면 기록을 세웠다. 랜드 가드너에 따르면, 단면 2일째에는 신경이 예민해지고 기억장애가 발생한다. 4일째에는 망상이 나타나고, 7일째에는 언어장애가 생긴다. 도전을 마친 그는 15시간을 내리자고 평소 생활 리듬을 찾게 됐다. 책은 불면증, 몽유병과 같은 수면 관련 질환의 원인, 해결방법 등 잠에 관한 모든 것을 파헤친다. 336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뇌는 춤추고 싶다

장동선·줄리아 F. 크리스텐슨 지음/영정용 옮김/아르테



“만병통치약인 춤, 왜 안 추는 거죠?” 뇌과학자 장동선과 신경과학자 줄리아 F. 크리스텐슨이 의기투합해 사람들을 모두 춤추게 할 유쾌한 결과물을 세상에 내놨다. 근육의 움직임은 뇌의 신경회로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춤을 추면 뇌를 전체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다양한 감각들이 수용되며, 근육의 움직임과 관련된 작용이 강화된다. 춤은 몸속의 작은 기적을 일으킨다. “자, 이제 모두 일어나 춤을 추자!” 416쪽. 1만7000원.

/김현정 기자

겨울 준비는 백화점서... 세일임박

롯데백화점

400억 물량 24만 상품 80% 할인

현대백화점

200여 해외브랜드 F/W시즌오프

신세계백화점

인기 브랜드 엄선해 갈라쇼 진행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 등 국내 주요 백화점이 고객의 소비심리에 불을 지핀다. 이달 중순부터 일제히 겨울 정기 세일에 돌입하며 11월 쇼핑 열기를 이어가는 것.

◆롯데백, 400억 물량 최대 80% 할인

롯데백화점은 오는 15일부터 12월 2일까지 18일간 겨울 정기 세일을 진행한다. 이번 세일에서는 전년보다 10%가 증가된 총 88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400억 물량, 24만개 상품을 최대 80%까지 할인한다.

먼저 파트너사와 함께 공동/대량 기획한 상품들을 정가가 대비 최대 8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는 ‘블랙 라벨 상품전’을 마련했다. 롯데백화점이 선보인 롱패딩, 롱베스트 등 직매입 상품들은 소진율이 이미 50%가 넘어 11월 내 모두 완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블랙라벨’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밀레 안젤로 벤치파카’, ‘블랙야크 L메테오 벤치파카’, ‘네파키즈 스웨터’가 있다.

합리적인 가격에 1+1 상품을 선보이는 ‘블랙 패키지’ 상품전도 진행한다. ‘블랙 패키지’ 상품은 상품 하나의 가격에 두 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세일을 위해 롯데백화점이 직접 기획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테팔’ 브랜드에서 선보이는 ‘조리도구 5종 세트 + 인덕션 겸용 30cm 워’이다. 브랜드 ‘우드워’에서 선보이는 ‘캔들+디퓨저’ 세트도 눈여겨볼 만하다.

구매금액대별 감사품 증정 및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도 진행한다.

◆현대백, F/W 시즌 오프·이월 상품 할인

현대백화점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15개 전 점포에서 겨울 정기 세일을 진행한다. 의류·잡화·리빙·아동 등 전 상품군에서 지난 겨울 세일보다 100여 개 많은 8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할인율은 10~50% 수준이다. 패딩·코트 등 겨울 아우터 물량



본점 매장에서 겨울 세일 상품을 고르는 모습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겨울정기세일대표이미지 /현대백화점

을 브랜드별로 지난해보다 최대 20% 이상 늘린 것이 특징이다.

특히 16~18일 3일간 현대백화점카드 사은 혜택을 강화한 ‘블랙위크엔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 의류·잡화·리빙 상품군에서 앤디앤엠·노스 페이스·시슬리 등 300여 개 브랜드를 선정해, 현대백화점카드 2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기존(5%)보다 1.5배 높은 구매금액대별 7.5%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세일 기간, 200여 개 해외 패션 브랜드가 참여하는 가을·겨울 상품 시즌 오프도 진행한다. 남녀 수입의류, 컨템포러리, 잡화 등 올해 가을·겨울 시즌 상품을 정가가 대비 10~50% 할인 판매한다.

◆신세계백, 명품 시즌오프로 소비심리 공략

신세계백화점은 2030 젊은층을 겨냥한 명품 할인 행사를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신세계몰에서는 ‘명품 갈라쇼’를 준비했다. 신세계몰에서 명품을 구매하면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S머니를 구매금액의 최대 20%까지 추가로 적립해주는 행사다. 기존 10% 수준 S머니 적립을 2배로 올려 온라인 명품 매출



SK2 갈라쇼

/신세계백화점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올 하반기에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를 엄선해 하루에 한 브랜드씩 갈라쇼를 진행한다. 19일부터 1주일간 SK-II, 바비브라운, 록시팡, 조르지오아르마니 명품 화장품을 시작으로 26일부터는 구찌, 버버리, 몽블랑, 코치, 론진 명품 잡화까지 가세한다.

불황에도 명품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신세계백화점 명품 매출신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명품 매출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영고객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명품 매출 신장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매장에서 대규모 명품 시즌 오프가 진행된다. 신세계백화점에서는 본점, 강남점, 센텀시티점, 대구신세계 등 주요 점포에서 총 3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해외 유명 브랜드 시즌오프를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올해의 ‘아름다운 숲’ 명소, 통도사 무풍한솔길

경남 양산 통도사의 무풍한솔길이 2018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뽑혔다.

강원 인제 백두대간 트레일 6구간, 제주 서귀포 머체왓숲길 등도 아름다운 숲에 이름을 올렸다.

유한김별리는 산림청, 생명의 숲과 함께 올해로 18회를 맞는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를 열고 전국에서 추천받은 50개 숲 가운데 서류심사와 온라인 시민투표, 현장 심사를 통해 생명상 1개소, 공존상 4개소, 누리상 1개소, 숲지기상 1개소 부문으로 총 7곳의 아름다운 숲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인 ‘생명상’을 받은 통도사 무풍한솔길은 우리나라 3대 사찰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통도사의 역사와 함께 오랫동안 잘 보존되어 온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령 100~

200년의 노송들이 구불구불 서 있고, 울창한 노송이 만들어 주는 푸르름과 서늘함이 숲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느끼게 하는 숲이다. 기존 콘크리트 포장길 걷어내고 흙길로 조성해 자연스러움을 지켜냈으며 생태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가 높음으로 평가받았다.

또 ‘공존상’으로는 강원도 인제군 백두대간 트레일 6구간, 제주 서귀포시 머체왓숲길, 제주 서귀포시 화순 꽃자왓, 전남 진도군 점도 남망산 숲길 등 각각 선정됐다. 이외에 ‘누리상’은 부산 대산공원 편백숲, ‘숲지기상’은 경남 함안군 삼림숲이 각각 뽑혔다.

2000년 처음 시작한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는 올해까지 총 252곳의 아름다운 숲을 발굴해 보존 문화 확산에 기여해 오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경남 양산 통도사 무풍한솔길.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해바라기

살아가며 서로 삶의 어두운길 비추라며 가을이 당신께 선물하는 하늘의 조명

/고홍근 작

www.pdna.co.kr

눈부신 어린 피부 “비밀은 DNA”



-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함유
- 아데노신 함유

바다 송어의 DNA*에너지 - 피디엔에이 크림

피부의 새로운 에너지, 바다 송어 추출 *sodium DNA 함유

메마른 피부는 안티에이징 적신호. 연어과 어류인 바다 송어에서 추출한 sodium DNA 1000ppm, 아데노신 등 7가지 피부보호 성분이 유수분밸런스에 도움을 주고 피부 자생력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꿔줍니다.

* sodium DNA, 아데노신, 병풀/어성초/치아씨/백년초열매 추출물, 올리브 오일 등

겨울에도 눈부신 봄 피부. 경험해보세요, 피디엔에이 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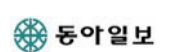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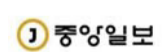
찬바람이 불어도 부드럽고 생기있게 빛나는 매끄러운 피부. 물광피부와 동안 관리 효과를 동시에 경험해 보세요. 피디엔에이 크림은 풍부한 영양감. 짙 찬 수분감으로 주름개선을 도와 피부에 새로운 시간을 선사합니다.

[주요 언론에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



- ▶ KOTRA BUYERS GUIDE Pioneer 소개 (2018.8)
"Skin regenerating cosmetics"

국내 주요 일간지에 동안크림으로 보도,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pdna.co.kr에서 확인하세요.



P+DNA MFDS 식약처 기능성 보고 완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070-4870-0708

예산확보에 총력전... 현대차·노조 만나 '마지막 협상'

'광주형 일자리' 15일 데드라인

이용섭 시장 본사에서 사장과 면담 부시장, 노조와 투자협약서 논의 예산 미확보 땀 협상 동력 약화

광주시가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는 15일까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설립을 위한 현대자동차와의 투자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대차와 노동계를 다시 만나 양측의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서울 현대차 본사에서 정진행 사장과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지역 노동계와 마련한 투자협약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대차와의 협상은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해왔으며, 이 시장이 직접 나서지는 것은 처음이다.



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용섭(가운데) 시장이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진행된 원탁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이 시장은 이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정지권 협조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15일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만큼 그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 시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전날에는 지역 노동계를 잇달아 만나 사업 참여를 호소했다.

9일 오전에는 사업에 반대하는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을 예정 없이 만나러 갔고, 오후에는 협상 파트너인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과 만나 평균초임 등 협상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자동차 업계의 어려운 상황에 비춰 현실성이 없다며 사업 중단을 요

구하고 있다.

시와 노동계의 협상 테이블인 투자유치추진단 회의도 이 시장의 방문에 이어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서 이병훈 부시장은 현대차와의 협상 내용을 밝히고 투자협약서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지역 노동계와 논의할 계획이다.

이 부시장은 지난 8일 서울 현대차 본사를 찾아 노동계와 논의된 협약서를 토대로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임금 수준, 공장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 2~3가지 부분에서 상당한 이견이 확인됐는데, 이 부분을 노동계에 설명하고 동의를 끌어낼 계획이다.

노동계와 논의가 마무리되면 다시 현대차를 찾아 재협상에 나선다.

국회 예산 심의가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려면 이날까지는 현대차와의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시는 현대차의 투자 협상을 끌어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면 사업 추

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국회 예산 심의까지 협상을 끝내달라고 못을 박은 만큼 이번 재협상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가 사업에 반대하면서 현대차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데다, 노동계도 양대 축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찬반으로 갈린 상황이어서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현대차와 노동계, 노동계 내부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번 재협상도 실패하게 된다면 사업 추진의 동력도 급격하게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예산 확보'라는 명분이 사라지면 시가 당정을 비롯해 현대차와 노동계를 사업에 끌어들이 명분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현대차와 노동계가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아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 일정을 고려하면 15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보고 마지막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함평군 월야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는 모습. /함평군

함평군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 교실' 성료

전남 함평군 월야초등학교(교장 문광호)가 지역 내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 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총 4주에 걸쳐 진행됐던 이번 생존수영 교실에는 지역 초등학교생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전문강사의 지도 아래 기본수영법, 구조되기까지 장시간 떠있을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영법을 배웠다.

지난 9월 1일,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함평군 거점학교로 지정된 월야초등학교는 학교 운동장 일부분을 활용해 어

름 형태의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하고 온수 및 온풍기를 가동하는 등 학생들의 편의에 최대한 신경 썼다.

또한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전문강사에 위탁 운영하고 생존수영 전문 강사 2인, 안전요원 2인, 총괄 관리인 1명 등 총 5명의 전문 인력을 상시 배치하며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썼다.

월야초등학교 문광호 교장은 "학생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는 생존수영을 잘 습득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함평=양수영 기자 ysn6313@

전남,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70억 지원

예비 사회적기업 20곳 추가 지정 지역공공구매 우선 구매 혜택 제공 자생력 확보... 일자리 확대 기대

전남도는 예비사회적기업 20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사회적기업에는 70억원을 지원해 이들 기업의 일자리 창출 등을 돕는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전통놀이 교육·놀이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을 하는 우리노리협동조합, 전통무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가치리움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활용한 기업들이 포함됐다.

또 지역특산물을 활용해 농수산물 가공·유통하는 ㈜뽕돌바다사람들, 농업

회사법인 ㈜나주시골농장 등도 새로 뽑혔다.

이들 예비사회적기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일자리 창출·사업 개발·시설 장비 등의 재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 공공구매 우선 구매 혜택도 주어진다.

전남도는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도내 145개 사회적기업에 모두 70억원을 지원한다.

엘로우지브라 등 51개 기업에 368명의 일자리 창출 지원비 53억 원을, ㈜미루나무 등 30개 기업에는 7억원의 사업 개발비를 제공한다.

사단법인 건강나눔 등 48개 기업에는 6

억원의 시설 장비구매비를, 유비एको 등 16개 기업에는 4억 원의 고도화사업비를 지원한다.

특히 우수기업임에도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에는 이번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지역 사회적기업은 155곳으로 연 매출 1천354억원에 고용 인원 1천254명이며 이 중 취약계층 고용률이 75%나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민선 7기 4년 동안 사회적기업 2천 개를 육성해 지역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공동체의 토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광주시 '싱크홀 주의보'... 증가율 전국 6배

광주에서 올해 발생한 '싱크홀(지반 침하로 인한 동공)'이 전국 평균 증가 폭의 6배 이상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광주시 시민안전실이 장재성(더불어민주당, 서구1) 광주시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광주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모두 41건으로 지난해 전체 21건보다 95% 증가

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14%보다 6.7배에 달하는 것이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발생한 싱크홀은 모두 10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역별로 광산구가 49건으로 가장 많고 동구 20건, 북구 14건, 남구 13건, 서구 9건 등이다.

올해 발생 원인별로는 하수관 문제로

파악된 건수가 36건(87.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발생한 105건 중 80건(76%)이 하수관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하수관로 중 30년 이상 된 관로는 345km에 달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천251km에 이른다.

장 의원은 "하수관이 원인으로 지목된 싱크홀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광주시 노후하수관로 교체 시급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전남도청 조자옥 주무관 쌀생산조정제 대통령 표창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쌀생산조정제 사업의 목표 달성에 노력한 전남도청 조자옥(47) 주무관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조 주무관은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쌀생산조정제 사업에 온 힘을 쏟아 전남도가 도내 목표면적(1만698ha)의 94%를 달성하고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데 기여했다.

/전남=봉채영 기자

전남도, 지방분권 대응 토론회 진행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전남도 차원의 균형발전 계획을 논의하는 지방분권 토론회가 지난 9일 전남 여성플라자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정부의 6대 전략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분권 효과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의미와 한계 및 향후 과제'를, 배정아 전남대 교수가 '자치분권 종합계획 재정 분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문행주 전남도의원, 박영주 동신대 교수, 김봉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지방분권과 재정 분권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벌였다.

/전남=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8 | 해질 / 1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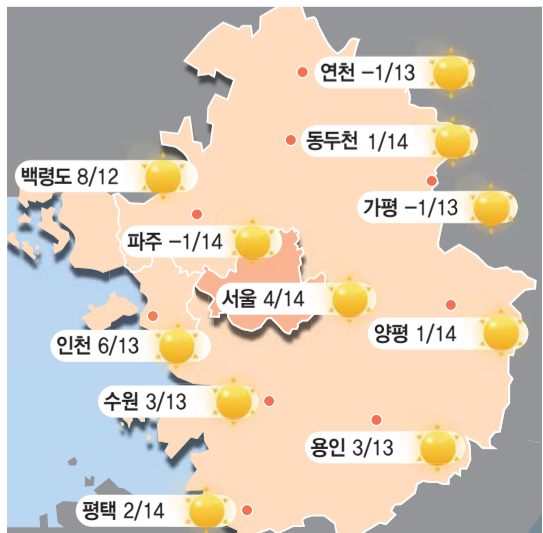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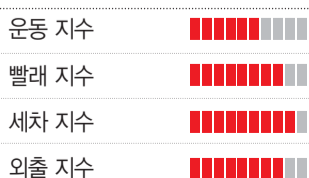
11월

12월 (월)

음력 : 10월 5일

수도권 날씨

4 ~ 14°C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겨울 미세먼지 선제대응, 대형사업장 30곳 집중 단속

서울시 특별단속반 편성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29곳 점검 적발 사업장 재점검... 이행 재확인

서울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1만㎡ 이상의 대형사업장 429곳이다. 시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철거,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30곳에 대해 8개 반을 편성해 12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자치구는 관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339곳에 대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주 2회 내외로 점검한다. 급변 단속은 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다.

서울연구원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발생 요인 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비산먼지가



살수시설 모습(왼쪽)과 도로 물청소 모습.



/서울시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차례나 발령된 바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대형공사장 야적 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 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

변 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상태 등이 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경고, 조치 이행 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향후 재점

검을 실시해 조치 여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에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단속과는 별개로 지난 2월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8대 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시민, 자치구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공사장 비산먼지는 실제 미세먼지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 하나"라며 "대규모 철거나 골토 작업이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는 만큼 특히 야적 토사나 토사 운반 차량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젊은 국악오디션 단장' 결선 경연

대상 팀에 해외공연 추진·창작지원금

서울시는 오는 14일 오후 7시 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에서 '젊은 국악오디션 단장' 최종 결선 경연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젊은 국악오디션 단장은 지난해 서울시와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해태가 체결한 '남산국악당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추진된 청년 국악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단장은 경쟁력 있는 국악인 발굴과 육성, 활동 지원을 꾀 키지화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결선에서는 지난해 본선 경연을 거쳐 선정된 5개 팀(궁예찬, 깎두기, 뉘뉘, 뮤르, 헤이스트링)이 경연을 펼친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강은일, 유경화, 이희문, 이서운, 이아람 등의 전문가로부터 멘토링을 받아 공연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왔다.

결선 경연에서 대상을 받은 팀에게는 내년도 해외 공연 추진비(항공료 및 경비지원), 창작지원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금상팀에게는 창작지원금 300만원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결선에 진출한 모든 팀에게 단체 프로필 사진 촬영, 홍보 영상 제작, 국영문 소개자료 제작 등 지속적인 국내외 홍보를 지원한다. 2019년도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제작한 공연으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단독공연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 경연에서는 국악을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계 전문 심사위원, 청중평가단의 투표를 심사에 반영한다. 시는 전통문화 국제교류 관계자,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전국 문예회관 공연기획자, 전국 주요 축제 프로그래머 등 공연 유통 관련자 등을 초청해 젊은 국악인을 알릴 예정이다.

젊은 국악오디션 단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산골한옥마을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남산골한옥마을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최종 결선에 참가하는 아티스트 '깎두기' /서울시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도서관 정책토론회'

서울도서관, 25일 서울시장서 개최 협치사업 일환... 누구나 참여가능

서울도서관은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장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지역도서관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 주제는 '도서관은 정확히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20일까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한 '서울시 협치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시민 이태중 씨와 정성욱 씨에 의해 제안됐다.

먼저 지역도서관 실태조사를 제안한 시민의 정책 제안 배경, 참여 과정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는 때에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 발표 후 시민 의견을 듣는다.

서울도서관은 지역 공공도서관의 정

책을 수립·시행하는 정책도서관이다. 앞서 서울도서관은 지난 6월 서울시 도서관발전 2차 계획에 해당하는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도서관은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역도서관 정책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25개 자치구 지역도서관 정책 소관 부서에도 이를 공유할 방침이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서울시 지역도서관 정책토론회'는 25개 자치구에서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나누는 정책 공론화의 첫걸음이며, 협치체도로 시작한 '서울시 지역도서관 이용실태조사'이다"며 "향후 서울시 공공도서관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예술교육센터 사업 결과 공유회 '오픈랩' 진행

7명의 예술가 '예술놀이랩' 결과 공유

서울문화재단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2018년 사업 결과 공유회인 '오픈랩'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센터는 기존의 예술교육을 예술놀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 창작과정을 높인 형태의 실험으로 개발·운영해왔다.

오픈랩 기획 전시는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상주형 예술가들이 참여한 예술교육 연구개발 프로그램 '예술놀이랩'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예술놀이랩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술가는 올해 상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현대미술, 한국화, 사운드스케이프, 응용연극, 회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등 7명이다.

본 전시는 예술가 프로그램의 연구 과정을 포함해 참여자들의 결과물을 예술



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구성된다.

전시는 ▲국기에 새겨진 시각기호를 이용해 '상상 속 공동체'를 대표하는 국기를 만드는 작업을 한 윤윤상 작가의 '환영합니다' ▲전자음악 작곡가 김자현의 우리 동네의 사운드스케이프(소리풍경)를 소리 나는 그림지도로 만든 '2018 서서울 사운드' ▲무심히 지나치는 경치에 그림을 얹어 만든 신다혜 작가의 '풍경 뒤의 풍경' ▲관계 예술 안에서 펼쳐진 다채롭고 영롱한 생각들을 표현한 김재현 작가의 '관계예술 속 판타지아' 등으로 이뤄졌다.

오픈랩 프로그램은 21일 오후 4시부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1층 로비 공간에서 진행된다. 전자음악 작곡가인 김자현TA의 '비디오푸가 03' 공연과 이해원 TA가 연출한 '작은 낭독극' 공연이 펼쳐진다.

전시 기간에는 도슨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 희망자는 12일부터 20일까지 서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 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 프로그램 운영 당일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중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예술놀이형 예술교육의 꾸준한 연구를 통해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줄여나가는 국내 최초의 어린이·청소년 예술교육 전용공간"이라며 "'오픈랩' 개최를 통해 지역 예술교육센터의 역할을 주민과 공유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교육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고시원 참사 막는다... 소규모 건축물 안전 점검

서울시가 고시원을 비롯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서울시내 고시원 5840곳과 소규모 건축물 1675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건축물 등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균열,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화재 취약시설은 소방·건축 공무원으로, 안전취약시설은 건축 구조 분야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 ▲비상구 및 피난 경로 장애물 적치 여부 ▲피난안내도 부착 여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 균열, 처짐, 변형 유무 등 건축물 상태 점검과 구조적 안전성 판단에 따른 보수보강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화재에 취약하거나 구조적인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보수·보강을 요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산업] 현대차 최대 기대작 G90·팔리세이드 출시 임박 06



[마켓] 中 에너지기업 CERC 부도 후폭풍 국내 증권사 '분쟁' 08



이른 새벽부터 에너지 '뽐뽐' 23년차 보험 세일즈맨, 진심 담은 노래로 '인생2막'



새벽을 여는 사람들

트로트 가수

구재영 씨

새벽 5시. 이른 아침부터 그의 하루는 분주하다. 제일 먼저 그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헬스장. 헬스장에서 만난 사람들도 나의 고객이자 나의 관객이라는 그는, 23년차 보험 세일즈맨이자 4년차 트로트 가수 구재영이다. 어디서든 에너지가 넘치는 그를 만나기 위해 지난 4일 그가 일하고 있는 보험회사를 찾았다.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시작된 가수의 꿈 “제가 보라고요?”

구재영은 지난 1996년까지 광고·판촉·인쇄업을 해오다 인생의 제2막을 열었다. 일 때문에 참석하게 된 회갑잔치에 사회자가 펀크를 내면서 우연치 않게 그가 MC를 보게 된 것. 이후 그는 하객들로부터 사회를 잘 본다는 입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행사전문 MC로 일하게 됐다. 그는 “처음 사회를 볼 적에는 걱정도 많고 긴장도 많이 했었다”면서 “그때 직업을 바꾼 건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오르게 된 무대는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 담아왔던 가수의 꿈도 이루게 했다. 행사MC를 하며 얻은 자신감으로 지난 2014년 정식가수로 데뷔하게 된 것이다. 그는 “마음속에 품어왔던 가수의 꿈을 이뤄 양로원이나 실버타운 등 어르신들을 찾아 노래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23년차 보험 세일즈맨이기도 하다. 행사MC와 가수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일정치 않아 보험 세일즈 활동을 하게 된 셈이다. 그는 “행사MC와 가수활동 대부분이 봉사활동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사가 없는 날에는 보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지금은 가수와 보험 일 모두 제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일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직업이 서로 보완 작업을 해주고 있다”며 “가수 일을 하며 만난 사람이 또 다른 고객이 될 수 있고, 고객은 가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신뢰를 갖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S화재 2018 블루리본을 수상했다.근속연수, 계약건수, 고객관리, 모집질서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는 블루리본 수상자.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알 수 있듯 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그의 삶, 그의 노래

특히 그는 노래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으려 노력한다. 그는 “진심이 담겨야 듣는 사람도 와 닿을 것 같아, 곡이 나오기 전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많이 반영하려 한다”면서 “진심이 담긴 이 노래를 통해 많은 이들이 힘을 얻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온 곡이 2014년 데뷔앨범 ‘맨발의 청춘’과 2017년 2집앨범 ‘덕분에’이다. ‘맨발의 청춘’은 서울로 상경해 무일푼으로 자리잡았



1 라디오에 출연 중인 가수 구재영. 2 지난 2일 가수 구재영이 충남 서천을 대표하는 향토문화제인 '제17회 기벌포문화제'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3 2018년 재능나눔공헌대상 시상식에서 문화예술인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가수 구재영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4 노래 연습을 하고 있는 가수 구재영. 5 가수 구재영 2집 앨범 사진. /사진=구재영

우연찮게 보게 된 MC 시작으로 오랜 꿈이었던 가수의 길 걸어

노래에 자신의 경험·생각 담아 양로원·실버타운 찾아 봉사활동 노래로 행복 전하는 가수 되고파

던 자신의 이야기를, '덕분에'는 많은 고객·관객들 덕분에 자신이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어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최근 나온 '덕분에'에는 감사, 사랑, 행복 등을 담아, 각박한 사회 속에서 쉽사리 전하기 어려운 누군가의 마음을 대신하고 있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로 고향인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한 구민회관에서 2014년부터 3년간 열었던 경로잔치를 꼽았다. "가수가 자신의 고향에서 노래하는 것은 또 다른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며 "인원이 많이 줄어 지금은 그때처럼 진행하기 어렵지만 매년 찾아 뵙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도 가수의 꿈은 현재진행형이라는 구재영. 지금도 시간이 날 때마다 CD

와 명함을 들고 방송국에 들른다. 그는 "방송국에 들어가 PD가 계시면 CD와 명함을 드리고, 안 계시면 책상에 놓고 나온다"며 "매니저가 있었다면 홍보하는 것이 한 걸 쉬웠겠지만, 혼자고 늦깎이가 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아내가 있어야 노래도 잘나와요" 그런 그에게도 비밀병기는 있다. 바로 아내다. 무대에 서기 전 의상부터 메이크업, 이미지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주는 아내는 구재영의 보이지 않는 매니저다. 그는 "아내가 없었다면 가수일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늘 응원하는 아내가 있어 맘 편히 가수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무대에 서면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시작한다는 그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노래 부르면 긴장도 사라지고 실수도 안하게 된다"며 "요즘은 무대에 오르면 먼저 아내의 얼굴을 찾는 게 일이 됐다"고 귀띔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2집 앨범 '덕분에'가 많이 불러 가요무대나 전국노래자랑과 같은 무대에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수가 된 것은 어떤 이익보다도 봉사활동을 당당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노래로 행복을 전하는 가수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가을 행사부터 송년회행사로 뽐뽐

한 스케줄이 이어져도 '무대에서 있을 때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는 구재영. 그는 "저의 모든 에너지는 무대에서 받아오는 것"이라며 "무대에 섰을 때 살아있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metroseoul.co.kr

